116
824B

3 JUL
Copy 1 1964

소년단

1963.12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큰 기계들

금년에도 천리마를 탄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 아저씨들은 없는 것은 찾아 내고 있는 것은 아껴 쓰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는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세상 사람들 놀래우는 수 많은 현대적 기계를 만들어 냈다.
그 중 몇가지를 여기에 소개한다.

⇨무한 궤도식 75 마력 뜨락또르

이 뜨락또르는 기양 뜨락또르 공장 로동자 기술자 아저씨들이 만든 《무한 궤도식 75 마력 뜨락또르》입니다.

《천리마》 뜨락또르처럼 고무 바퀴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땅크처럼 무한궤도로 달립니다.

때문에 험하고 깊이 빠지는 곳이라도 썽썽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천리마 뜨락또르보다 3배나 더 셉니다.

이것으로 논밭도 갈고, 탈곡도 하고 짐 나르기도 하고 논밭을 정리하기도하고 림산 작업장에서 나무를 끌기도 합니다.

⇨75t급 대형 탑식 기중기《자력 갱생 63호》

이 기중기는 북중 기계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청산리 돌격대》《자력 갱생의 돌격대》등을 조직하고 불과 4개월 간에 만들어 냈다.

기중기의 높이는 75메터, 팔의 길이는 40여 메터이다. 이 기중기로 93메터 높이까지 75톤의 무게를 가진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 기중기는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장에서 첫 일을 시작했다.

⇦이 굴착기는 락원 기계 공장 로동자 기술자 아저씨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큰 굴착기입니다.

삽의 용량이 4 립방 메터나 되는 이 굴착기는 몸체기 2층 집 만큼이나 크고 8 시간 동안에 2500~3500 립방 메터의 광석을 캐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삽에 8~9 톤의 광석을 개올리는 이 굴착기에는 부속품만 하여도 2500여 종에 18200여 개에 달합니다.

《장백호》굴착기

⇨이 기계는 락랑 건재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이 만든 것입니다.

7000여 종에 13000여 개의 부속품을 가진 이 프레스는 높이 9 메터, 너비 4 메터, 길이 5 메터에 달하며 최고 6300 톤의 힘으로 내리 누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나무껍질, 나무 잎, 나무 뿌리, 풀, 짚, 피지, 누더기 등을 내리 눌러 베크라이트, 후아이바과 같은 합판을 만듭니다.

이 합판을 가지고 1년에 약 5만 세대의 집 천장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5천 5백톤 유압 프레스

⇧최신형 400마력 디젤 기관 《자력 갱생호》

북중 기계 공장 로동자 기술자 아저씨들은 자체의 기술, 힘과 자재로 기통수가 8 개나 달려 있고 4 행정으로 되여 있는 400마력 디젤 기관을 만들었다.

이 디젤 기관은 길이가 4.9메터, 높이 2.1메터에 달하며 부속품만하여도 1360여 종에 1만여 개나 되는 구조상 아주 복잡하고 정밀한 것이다.

400마력 디젤 기관은 우리 나라의 수산업과 해상 운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3 년 12 호

내 용

표지 1 면-눈 싸움 .... 그림 양 재혁

김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 시절

(제 9 회)

강 효 순　　　　그림 최 순 천

7

원수님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날 만경대를 떠나 칠골로 향했습니다.

남포로 나가는 신작로를 넘어서자 그립던 칠골이 눈 앞에 보였습니다. 마을 앞 동'둑에는 오리나무가 우거졌고 마을 뒤' 산에는 소나무들과 참나무들이 꽉 들이차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치 안처럼 아늑한 곳에 자리잡은이 마을은 거의 100 호 가량이나 되였는데 군데 군데 기와집도 있었지만은 거의가 초가였습니다. 원수님의 시선은 한 초가에 멎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는 집이였으나 새 이영을 덮었고 갈 바자를 쭉 둘러 쳤는데 아주 알뜰하게 꾸려져 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외가'집이였습니다. 집만 바라보아도 무척 반가왔습니다. 원수님은 명절 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외가'집을 찾아 오던 옛 기억이 떠 올랐습니다. 그때 외가'집에 간다면 왜 그리도 기뻤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외가'집에도 살림이 가난하였고 게다가 그리 탐탁하게 음식을 마련해 주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가'집에 가는 날은 명절에 생일을 겹친 것 보다도 더 기뻤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온 집안이 떨쳐나 진심으로 반가이 맞아 주며 극진히 사랑해 주기 때문이였습니다.

창덕 학교는 마을 뒤'쪽으로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한 채와 기윽자로 꺾어 지은 초가집 한 채가 창덕 학교 교사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선생들이 정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래일부터는 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원수님은 낯익은 마을을 반가운 시선으로 둘러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느 한 기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당이 운동장처럼 넓은 품이 어지간히 잘사는 모양이였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술추념이 벌어진 모양인지 토방에는 신들이 가뜩 놓여 있었습니다. 왁짜 떠드는 소리도 들려 오고 간사한 녀자의 웃음 소리도 들려 왔습니다.

초록 바지 저고리에 남색 조끼를 입은 15세가량 되여 보이는 아이가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뒤에서밀어 주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는 핸들을 잡고 있을 뿐이고 가누기는 자전거를 밀어 주는아이가 하고 있었습니다. 밀어주는 것도 자기 차례가 오지 않는 모양인지 몇 아이는 거저 자전거를 주런이 좇아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흥! 너절한 놈들 같으니! 뭘 저리 주런주런 좇아 다니구들 있누!)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기와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사랑'방에서는 노래 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남들은 모두 농사'일에 바빠하는데 이집은 딴 세상이구나!)

원수님은 사랑'방을 흘깃 바라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자전거에서 훌쩍 내리더니 원수님을 쓱 바라보며 쇠된 목소리로

《뭐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반대기처럼 넓적하고 볼'살이 척 늘어졌는데 코 끝을 가위로 자른것처럼 발짝한 꼴이 정말 보기만 해도 웃음통이 터질 지경이였습니다. 어찌나 잘 먹었는지 얼굴에는 개기름이 칠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 신랑처럼 차려 입고 아이들을 시켜 자전거를 밀게하는 꼴이 밉살스러웠는데 밑도 끝도 없이 《뭐야》하고 소래기를 치니 더욱 아니꼬왔습니다. 원수님은 가던 길을 우뚝 멈추고 한동안 그애를 노려보고 나서 굵은 목소리로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애는 잡고 있던 자전거 핸돌을 다른 아이에게 맡기더니 원수님 앞으로 몇 발'걸음 다가 섰습니다.

《뭐하러 어디를 가는 아이냐 말이야!》

그애는 턱을 재치고 뒤'짐을 착 지더니 노상 으시대는 것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주먹을 불끈 쥐였습니다.

(돈냥이나 있다구 노상 건방진데! 버릇없이 자란 놈의 자식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주먹이 떨렸습니다. 원수님의 눈에서는 불이라도 막 튕겨 나올 듯이 사뭇 번쩍이였습니다. 막 달려 들어 척 늘어진 볼따구니를 갈겨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외가'집 마을에 도착하자'바람으로 싸움부터 한다면 외조부가 걱정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심호흡을 하고 나서부러 빙그레 웃었습니다.

《남이야 뭘하러 어딜 가든 그건 알아서 뭘하겠니?》

《이애가 맞선다? 그럼 너 어째서 우리 마당으로 마구 지나가니?》하고 까박을 붙였습니다.

《그럼 너의 마당으로는 절을 하구 지나가냐? 통행세를 물구 지나가게 마련이냐?》

《절두 안 받구, 통행세도 안 받는다.》

《그럼 이리루 지나가던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들어가야 하겠구나, 응! 그래서 저사람들두 너의 집에 붙들려 들어가서 벅작 고아대구 있구나!》

원수님은 아니꼽던 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찌구 어쨰야!》

그아이는 노상 팔 소매를 척척 걷어 올리며 원수님 앞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대들지는 못하고 제 동무들에게 고개짓을 하는 품이 응원을 해 달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그애들 중에도 나서는 아이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 싸워보잔 말이냐?》

원수님은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며 그애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나서

《나두 이 동네루 살려 오는데 싸움은 그만두자! 해볼테면 씨름이나 한번 해보자꾸나.》하며 보따리를 마당에 놓고 두 손을 벌리며 그애 앞으로 다구어 갔습니다. 씨름이라도 하는 척하고 한번 곤두박아 주고싶었던 것입니다.

그애는 눈이 둥글해서 뒤로 비슬비슬 물러서며 원수님과 제 동무들을 번갈아 바라보는 것이였습니다.

《해 보렴아!》

자전거를 밀어 주던 아이의 말이였습니다.

《너 힘이 얼마나 세기에 귀동이하구 씨름을 해보자구 그러니, 이 애는 산삼을 다섯뿌리나 먹은 애야, 힘이 천하 장수구 기운은 얼마나 센지 아니?》

곁에 서고 있던 아이가 원수님에게 하는 말이였습니다.

《나는 조밥에 토장만 먹구 자랐다만 한번 해보자!》

원수님이 그애 바지 괴춤을 부여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애는 깜짝 놀라며 뒤로 후닥닥 물러섰습니다.

《네가 한 번 해봐라!》

그애는 곁에 서고 있던 제 동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애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안하겠다면 할 수 없지!》하며 원수님은 보자기를 들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원수님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귀동이라는 아이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원수님이 지나 가자 마당에 서고 있던 두세아이가 원수님 뒤를 좇아 왔습니다.

《그런데 너 이 동네루 살려 온다는데 어느 집으루 이사오냐?》

볼이 빠르고 목이 상큼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가'집으로 공부하러 온다. 너의들두 창덕 학교에 다니니?》

《응! 너두 창덕 학교에 다닐 셈이냐?》

《응!》

《그래? 그럼 너희 외가'집이 어느 집이냐?》

단지팽이처럼 통통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집이 우리 외가'집이야.》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네 말이구나. 너 그럼 만주에서 오냐?》

그애는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응! 어떻게 아니?》

《이근방에 사는 사람치구 너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한명두 없을게다. 응! 그렇겠구나, 그럼 너는 천천히 오너라.》

그애들은 단거리 경주라도 하는 듯이 원수님의 외가'집을 향하여 달려 갔습니다. 원수님도 어느덧 아까 귀동이네 마당에서 벌어졌던 일은 잊은듯이 명랑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원수님이 외가'집 모퉁이를 돌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그리고 외사촌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반가와 하는 바람에 강아지마저 짖을 줄도 모르고 꼬리를 치며 덩달아 반가와 했습니다.

《어! 우리 성주가 오는구만, 그래 지금 중국서 나오는 길이냐?》

하고 외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만경대서 며칠 놀구 왔습니다.》

《잘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평안하시더냐?》

《네!》

《만주'집에두 잘들 있구?》

《네!》

원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하려다가 그저 이렇게 대답하구 말았습니다.

《철주랑, 영주두 이제는 퍼그나 컸겠구나.》

《철주도 학교에 붙었어요, 그리고 영주두 심부름을 곧잘 하는데요.》

《암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두 네가 꼭 오리라구 생각했다. 퍽 기다리구 있었다.》

외할아버지도 매우 반가와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자기 늙는 것은 몰라두 남 자라는 것은 안다구! 정말 몰라보게 컸구나! 거리에서 만나 싸움을 해두 모를번 했구나!》

간디외삼촌의 말씀이였습니다.

《만주에 있는 너의 형님이다. 인사를 해야지!》

할아버지는 원수님의 사촌 동생 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그럼 현수나요?》

《그렇다.》

《야 굉장히 컸구나! 그 때는 젖을 먹었는데.》

원수님도 7년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놀라운 눈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는 까만 눈을 반짝거리며 상글상글 웃었습니다.

《너 이제는 학교에 다니겠구나.》

《래일 1학년에 붙어!》

《잘 됐다. 나하구 같이 공부하자!

너 학교에 붙으면 처음부터 공부를 잘 해야 한다.》

원수님은 현수의 머리를 쓸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머리를 까딱까딱 했습니다.

《자! 어서들 들어가자!》

외할아버지의 말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외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외가'집도 만경대 할아버지네 집처럼 방안에 놓인 것이란 낡은 궤짝 하나뿐이였습니다. 만경대'집과 다른 것은 외할아버지의 방에 작은 책장이 있는 것과 자작만든 책장에 책이 주르니 꽂혀 있는 것, 그리고 벽에 사진틀이 걸려 있는 것 뿐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사진틀에 넣은 많은 사진들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때에 원수님의 머리에는 언젠가 만주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어머니께서 외가'집에 보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원수님은 사진틀 앞으로 달려 가서 빠른 시선으로 사진틀을 죽 훑어 보았습니다. 만주에서 보낸 가족 사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진에는 원수님이 귀여워하던 검둥이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은 퍽 서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우리 가족 사진을 받지 못했어요?》
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말 없이 한동안 원수님을 바라보시더니

《왜 못 받았겠니, 받은지 벌써 오랬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사진틀에 넣지 않았어요?》
하고 다시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외할아버지는 가늘게 한숨을 짓고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가족 사진을 버젓이 걸구 살 때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세상이 멀지 않아 오기야 오겠지.》

서분하던 원수님의 감정은 어느덧 울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사진도 마음대로 걸 수 없는 이놈의 세상이 언제나 끝장이 나려누.》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외가'집의 가족 사진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애티있는 큰 외삼촌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원수님의 머리에는 팔도구에서 마지막 길을 떠나던 큰 외삼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큰 외삼촌이 놈들의 손에 붙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쥐여 뜯고 방'바닥을 치면서 비분에 쌓여 있던 아버지의 모습도 떠 올랐습니다.

《큰 외삼촌의 소식은 전연 모르고 있나요?》

《면회를 간다 간다 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못갔다. 그놈의 돈이 있어야 면회두 갈게 아니냐. 금년 농사나 잘 지으면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일터에 나갔던 외사촌 형네 부부와 작은 외삼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원수님보다 한해 우인 쌍가마 누나도 달려 왔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큰 외삼촌네 가족들도 모두 외할아버지네 집에 모였습니다. 두 집 식구는 13 명이나 되였습니다. 이날은 모두가 명절날 기분이였습니다. 그러나 차려놓은 음식은 메기 알 같은 조밥과 가뜩 넣은 콩탕이였습니다.

외삼촌 어머니는 멀고 먼 곳에서 온 원수님을 위하여 맛다른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나 할아버지의 생신에도 이밥을 대접하지 못하는 신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참 오래간만에 왔는데 안됐다. 이밥에 고기'국으로 알구 많이 먹어라》

삼촌 어머니의 말이였습니다. 원수님은 그 심정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간디 어머니 별 말씀 다 하시는군요. 나는 콩탕을 제일 좋아해요.》

원수님은 저녁상을 마주 앉고 소담스럽게 들기시작하였습니다. 13 명 식구가 개시 한 그릇씩 맡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실로 콩탕이 별식이였습니다.

《이밥에 고기'국을 놓구두 소화가 안돼서 괠괠하는 것보다 조밥에 토장을 놓구두입 달게 먹는 것이 제일이니라!》 하며 외 조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원수님은 밤 늦도록 집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나라를 지켜 싸운 명장들의 말)

《내가 의병에 투신한 것은 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함이라. 이제 한날 사소한 사혐으로써 나라의 위급함을 모른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정 문부)

※ 정 문부는 임진 조국 전쟁 때 함경도 일대에서 왜적을 때려 부신 의병장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목숨을 나라의 운명보다 귀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웠습니다.

최 광

나는 오늘 잡지 《소년단》 지상을 통하여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전사가 되기 위해 힘 쓰는 여러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아동단원들이 아동단 조직에 어떻게 충실했고 아동단의 규률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단원들은 자기 조직인 아동단을 무한히 사랑했으며 아동단 조직이 내세운 규률을 어김 없이 지켰습니다. 그것은 규률이 조직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이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뭉친 집단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강한 규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조직에 뭉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그 대로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 조직이 자기 목적을 옳게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규률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 조직은 오래지 않아 산산히 흩어지고 말 것이고 자기 앞에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규률이 없는 조직은 조직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규률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중(까마귀 무리들이 모인 것)이며 규률이 강한 군대는 백전 백승(백 번 싸워도 백 번 다 이긴다는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강한 규률이 따르며 또 규률이 강한 조직이라고 하면 그것은 튼튼한 조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직—이것은 규률을 떠나서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이 15 년이란 긴긴 세월을 두고 강도 일제와 싸워 이긴 것도 강한 규률로 뭉친 혁명 조직이였기 때문입니다.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아동단은 바로 이 모범을 따라 강한 규률로 뭉친 혁명적 조직이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전 세계 무산 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며,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며,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전사로 혁명에 충직할 것을 굳게 맹세하고 아동단의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단결된 아동단원들은 유격대 아저씨들을 도와서 유격 근거지 보초도 서고 비밀 통신 련락 임무도 수행하면서 유격대를 도와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원쑤놈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학습도 꾸준히 하였고 장차 공청원이 되고 유격대원이 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이런 생활을 통하여 조직에 충실하고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어린 혁명 전사로 자라 났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조직의 위임이라면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습니다.

동무들이 잘 아는 아동단원 황 정해 동무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 봅시다.

황 정해 동무는 중요한 비밀 통신 련락을 가다가 그만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조직의 비밀을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원쑤놈들의 부대 비밀을 탐지하고 무기까지 가지고 도망쳐 아동단 조직을 찾아 왔습니다. 이것은 아동단 조직의 위임에 끝까지 충실한 한 가지 실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동단원들은 혁명 조직이 요구하는 일이면 깊은 밤 통신 련락과 정찰을 갔다 오는 일 등 그 어떤 어려운 임무라도 서슴없이 맡아 나섰습니다.

원쑤놈들이 욱실거리는 곳에 가서 비밀을 탐지해 오는 일, 이것은 생명을 내걸고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동단 조직에서 혁명적 의지와 강한 규률로 단련된 아동단원들은 이런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단원들이 조직 생활에 충실하고 조직의 위임을 수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일제 원쑤놈들과의 치렬한 싸움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아동단원들은 잊지 않고 원쑤놈들에 대한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조직의 위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동단 조직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원쑤놈들도 새여 들지 못 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학습하면서도 보초를 세웠으며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으면서도 군데군데 보초를 세우고 경각성 있게 일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토벌대》놈들이 쳐들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왕우구 북동 학교 아동단원들의 생활에서 있은 일입니다. 하루는 두 아동단원이 학교 건너 편 산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깜짝할 새에 원쑤놈들이 산중턱까지 기여 올랐습니다. 원쑤놈들은 감시 목표가 아닌 다른 산'길을 에돌아 왔던 것입니다.

아동단원들은 즉시 붉은 기와 흰 기를 들어 신호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이 신호를 받고 고개마루에 뛰여 올라 붉은 넥타이를 마구 흔들며 유격대 아저씨들에게 알려 원쑤놈들을 몽땅 소멸하였습니다.

이 때 만일 두 아동단원이 아동단 조직의 규률을 지키지 않고 경각성 없이 보초를 서서 원쑤놈들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우리 아동단원들과 수 많은 마을 사람들의 희생은 물론 혁명 조직에 큰 손실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감하고 지혜로운 아동단원들의 힘이 어디서 생겨 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아동단원들의 영예를 간직하고 아동단 조직 규률이 요구하는 대로 생활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 아동단원들에게는 열 세 가지 규률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아동단원들은 조직 생활에 충실해야 하며 조직의 위임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 내며, 동무들끼리 단결하며,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꾸준히 학습하며, 원쑤를 증오하고 그와 용감히 싸우며,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킬 줄 알아야 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자고자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누구나 입단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의 열 세 가지 규률 조항을 배우고야 입단 서약을 했습니다.

아동단원들은 혁명 승리의 그 날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아동단의 이 규률 조항을 어김없이 실천하면서 항상 몸과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때문에 그처럼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킬 줄 알았으며 조직의 위임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끝까지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 모범을 수 많은 공화국 영웅들에게서 찾아 봅니다.

동무들도 잘 알고 있는 리 수복, 박 원진, 조 군실 영웅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기의 목숨도 서슴 없이 바칠 수 있은 것은 어려서부터 소년단과 민청 조직에서 규률 있게 단련되고 준비되였기 때문입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남산 고중에서 하신 교시에서 소년단 조직에서는 앞으로 민청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년단 생활은 조직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사상적 준비 단계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김 일성 원수님의 이 가르침을 명심하고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그들처럼 소년단 조직 생활에 충실하고 《조선 소년단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언제나 규률 있게 배우며 준비함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충직한 조국 앞날의 믿음직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납시다.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 네 포)

지난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두 주일 간에 걸쳐 인도네시아의 수도 쟈카르타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는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네포)가 있었습니다.

이 체육 대회의 이름을 가네포라고도 말합니다.

가네포가 생기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해 8월에 인도네시아의 수도 쟈카르타에서 제 4 차 아세아 경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경기 대회에 중국 인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장 개석 도당과 아랍 인민의 원쑤인 이스라엘을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이것을 트집으로 삼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의 권리를 무기한 정지시키고 명년도에 일본의 수도 도꾜에서 진행될 국제 올림픽 대회에 인도네시아를 참가시키지 않는다는 옳지 못 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결정은 인도네시아 인민들을 격분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금년 2월 13일 인도네시아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따로 신흥 세력 체육 경기 대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제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지난 4월에 쟈카르타에서 이 준비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4 년에 한 번씩 가네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 번 첫 경기 대회는 이를 발기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기로 되였던 것입니다.

이 번 경기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51 개의 나라와 지역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번 경기 대회는 지난날 압박 받고 착취 받던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굳게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될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된 기쁨

만년 광산 건설갱 갱장(공훈 광부)
고 창 옥

보람찬 하루'일을 끝내고 문화 회관으로 모여 드는 로동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어리여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얼굴에도, 아버지, 어머니들의 품에 안긴 귀여운 어린이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함빡 어리였습니다.

회관에서는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를 경축하여 찾아 온 이 곳 수두 중학교 소년단원들과 마을 유치원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위안 공연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우리는 행복해요〉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귀여운 소녀의 쟁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우리의 가족들은 모두 저도 모르게 《야! 우리 영숙이가 나온대!》 하고 요란한 박수 소리와 함께 환성을 터뜨리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의 손목을 잡아 끌며 저희들이 출연하는 써클을 구경하러 가야 한다고 졸라 대던 우리 딸애 영숙이가 동무들과 함께 무대에 나온 것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공연한다고 신이 나서 부르는 딸애의 쟁쟁한 노래 소리며 나풀나풀 나비처럼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어쩐지 그만 코허리가 시큰해지고 눈앞이 흐려져서 딸애의 춤과 노래를 끝까지 제대로 보지 못 하였습니다.

이런 때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 때 나는 나의 지난날이 생각되였던 것입니다.

지주'집 머슴의 아들로 태여난 나는 학교에는 고사하고 여덟 살 때부터 남의 집 아이보기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열 네 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도 남의 집 머슴'군으로 있는 것보다는 공장이나 광산에 들어 가 로동을 하여 옷이라도 한 벌 해 입고 싶은 생각이 들어 광산에 찾아 갔던 것입니다. 그 때 백 년 광산은 일본놈 자본가들의 세상이였는데 이 놈들은 헐값으로 더 많이 부려 먹기 위해 철부지 어린것들을 많이 끌어 들였던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아슬아슬한 사다리를 타고 굴 구덩이에 들어 가 하루 종일 육중한 마치로 남포 구멍을 뚫어야 했고 등뼈가 휘도록 질통을 져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 날에도 석수(바위에서 흘러 떨어지는 물)가 줄줄 흐르는 굴 속에서 홑잠뱅이를 입고 14~16 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차례지는 것은 하루 세 때 대두박으로 멀겋게 끓인 죽이 아니면 파리가 빨아먹다 남은 것 같은 보리밥 한 줌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들이 다 내다보이는 거적떼기를 둘러친 움막집에서 주린 창자를 그러안고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이튿날 아침 역시 조막만한 보리밥 한 덩이를 먹고 첫 닭이 울 때 일터에 끌려 나갔습니다. 게다가 일본놈 주인놈과 도감독놈들은 허기진 몸에 육중한 마치질을 하다가 맥 없이 쓰러진 로동자들에게까지 달려 들어 딱따구리 마치로 사정없이 내려 조기기가 일수였습니다. 이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광부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나면 다음 날 새벽에는 일어 나기가 죽기보다도 더 싫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면 의례히 일본놈 주임놈과 도감독놈들의 딱따구리 마치와 구두'발이 노리고 있는 그 놈의 굴 속을 찾아 울음을 삼키며 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일본놈 광주놈은 로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안전 시설을 갖추자면 돈이 사람값보다 더 든다고 하면서 굴 속에 동발도 제대로 들이지 않고는 광석만 캐라고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남포 놀 때 굴이 울려 무너져서 많은 로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어 갔습니다.

이처럼 자본가놈들은 우리 로동자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 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로동자들은 저녁에 함바에 돌아가 잠'자리에 누워서야 그 날도 또 하루를 살았다고 한숨을 쉬군 했습니다.

이렇게 착취 받고 천대 받던 우리 로동자들이 오늘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은 거의다 기계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수천길 막장에서 캐내는 광석들은 전차에 실리여 선광장으로 가는데 이것도 다 기계가 하는 것입니다.

갱 내는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하지 않으리만치 콩크리트로 포장되였습니다. 막장에서 광석을 캐는 착암공들은 돌'가루가 날리지 않게 물을 뿌리며 파 들어 가는 습식 착암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하게 하는 모든 장치들이 되여 우리 로동자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일하고 있습니다.

로동자들의 생활인들 또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집만 해도 재봉기, 라디오, 시계 등 갖가지 살림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 부러운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에서는 나를 갱장으로, 공훈 광부로 키워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배려이며 행복입니까!

해방 전에는 자기 이름'자도 모르던 나를 당은 성인 학교, 성인 중학교를 걸쳐 도당 학교까지 졸업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두가 지난날 일제 때처럼 우리의 주권이 없었던 그런 세상 같으면 꿈엔들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당과 정부에서는 우리 광산 로동자들의 아들딸들을 위해 4 개의 중학교와 6 개의 유치원을 화려하게 건설하여 주었습니다.

광산에는 또한 고등 광업 학교, 공산 대학들이 건설되여 지난날 배우지 못 했던 광부들이 오늘은 마음껏 일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었던 지난날 일제 때 같으면 압박 받고 천대 받던 우리 로동자들과 그의 아들딸들이 어디 이런 행복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로동자 아저씨들은 이 행복을 가져다 준 당과 정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남반부 형제들과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픕니다. 동무들처럼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며 부럼 없이 뛰놀아야 할 어린 소년들이 학교에는 고사하고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매다 굶어 죽고 병 들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미국 승냥이놈들 때문입니다. 미국놈들은 우리와 함께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원쑤놈들입니다.

미국놈을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남반부의 부모 형제들과 어린이들도 우리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모두 오늘의 이 행복을 가져다 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당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합시다.

동무들은 공부를 더 잘 하고 소년단 생활에 충실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더 많은 광석을 캐 보내기 위해 힘 쓰는 것으로 더 많이 조국에 이바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어떠한 원쑤도 얼씬 못 하게 조국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 힘 씁시다.

무대 우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경사에 또 경사

—평남 문덕군 성범 협동 농장에서—

본사 기자 조 병 권

《빵빵!》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리더니 협동 농장 마당에 집체 같은 짐을 실은 낯 선 자동차 몇 대가 와 멎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와 자동차를 에워 쌌다. 어느듯 농장 마당에서는 농악 소리에 맞추어 홍겨운 춤판이 벌어졌다.

《야! 멋이 있구나, 공장에서 새로 나온 차지.》

《이게 모두 뭘가?》

《뭐긴 뭐겠니, 군에서 보내 오는 새 기계들이겠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저마다 제 생각들을 말하느라고 법석 떠들고 있었다.

마침 이 때 아이들을 헤집으며 군중 속으로 끼여 드는 한 아저씨가 있었다. 이 곳 농장 제 5 작업반의 차 찬균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자동차에 매달려 법석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 보시며 《잠녀석들 같으니라구, 모르면 물어 보기나 할 게지, 이게 올해 우리 농장이 농사를 잘 지었다구 수상님께서 보내 주신 선물이란다.》

《네?! 이게 모두요?!》

《암, 그렇구말구.》

《아저씨, 이게 모두 뭔데요?》

누군가가 불쑥 묻는 말에 아저씨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이였다.

《여기 이 새 자동차 한 대하구, 가마니 직조기가 4 대, 자동 새끼 꼬기 기계가 32 대구, 전체 농장원들에게 차례지는 솜 저고리가 1,260 벌, 그리구 관리 위원장과 리당 위원장 아저씨에게 오는 자전거가 2 대, 또 관리 위원장, 리 민청 위원장, 리 녀맹 위원장과 책임 기사 동지에게 오는 고급 양복천과 비단 옷감들이다.》

《야! 굉장하구나!》

눈이 휘둥글해진 아이들을 돌아 보시며 감개 무량해서 말씀하시는 아저씨의 두 눈에는 순간 이슬이 맺히는 것이였다.

아저씨는 이 좋은 날에 왜 눈물을 흘리실가? 오늘이 기뻐서만일가? 아니다. 아저씨는 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압박 받고 천대 받던 피눈물 나는 지난날이 떠올랐던 것이다.

× ×

아저씨는 해방 전 개천군 중서면 룡호리에서 지주 리 창중놈의 소작살이를 하였다. 지주놈에게 비라리를 해서 땅 4,000 평짜리 한 뙈기를 얻어 근근히 농사를 지

었다. 해마다 봄이면 밭갈이할 소가 없어서 가을에 가서 쌀을 주기로 하고 지주네 집에서 소를 빌려다 밭을 갈았다. 그러나 그것도 제때에 빌려 주지 않아서 남과 같이 제철에 씨를 뿌리지 못했다. 그래서 늘 호미와 괭이로 땅을 뒤지거나 때로는 사람이 소를 대신해서 연장을 끌군 하였다. 아침에 멀건 옥수수 막같이 죽 한 사발을 먹고 나가 소나 말처럼 연장을 끈다는 것은 여간만 힘드는 일이 아니였다. 그러기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연장을 끌다가 기진맥진해 밭에 쓰러져 눈물을 흘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였다.

게다가 아저씨네가 부치던 땅은 메마른 돌밭이여서 이렇게 먹지도 못 하고 뼈가 휘도록 아득바득 농사를 지어야 통털어 곡식이란 열 섬 (20 가마니)이 나나 마나 했다. 그런데다 지주놈에게 소작료요, 소겯이 값이요, 그 밖에 빚값이요 하고 빼앗기고 나면 일곱 식구가 한 달 먹을 식량도 남지 않았다. 해마다 사정은 매 한 가지였다. 그래서 아저씨는 마당질을 끝 낸 다음날부터 벌써 아버지를 따라 광산이나 토목 공사장으로 날품팔이를 나다니지 않으면 안 되였던 것이다. 그 때 왜놈 자본가가 경영하는 개천 청동 광산에서는 림시 로력을 받군 했다. 아저씨는 아버지와 함께 광산에 들어 가서 광차에 광석을 실어 주고 얼마간씩 받아다가 겨우 입에 풀칠을 해 가면서 겨울을 보냈다. 그러다 봄이 오면 소나무 껍질과 산나물, 풀 뿌리로 목숨을 이어 가며 또 농사를 지었다.

아저씨네는 땅을 잘 걸우면 소출도 많아지고 그러면 생활이 좀 펴일가해서 봄, 여름이면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다가도 달 뜨는 밤이나 이른 새벽이면 온 식구가 달라붙어서 소똥을 주어다 거름을 만들고 밭에 나가 손톱이 닳도록 돌을 주어 내고 돌각담을 헐어 냈다. 그리고 풀을 베다 깔아서 땅을 걸우었고 밭두렁을 뚜져 밭을 늘구었다. 이렇게 밤낮으로 3 년을 애써서 한 해 가을은 겨우 10 섬씩 밖에 거두지 못 하던 밭에서 18 섬 (36 가마니)의 곡식을 거두었다. 이 때의 온 집안 식구들의 기쁨이야 오죽했으랴!

그러나 이 풍작의 기쁨이 도리여 슬픔을 가져다 줄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 해 그만 불행하게도 아저씨네는 지주놈네 집에서 반작이로 얻어다 먹이던 송아지가 병으로 그만 죽었다. 그렇지 않아도 풍작 이룬 아저씨네 밭에 군침을 삼키던 지주놈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여겨 소작료요, 소를 부린 값이요, 죽은 소값이

요. 하면서 아저씨네가 거둔 곡식을 깡그리 빼앗아 갔다.

그리고도 아직 모자란다고 나머지는 겨울에 품을 팔아서라도 장만 해 내라고 을러댔다. 아저씨네는 당장 먹고 살아 갈 일이 캄캄했다. 그 해 겨울 아저씨는 떨어진 소값을 마련하기 위해 온 겨울을 하루도 빠짐 없이 산에 가 나무를 해서는 등'짐으로 져서 20 리나 떨어진 장'거리에 내다 팔았다. 그리고도 소값을 다 물지 못 해 이듬해 가을에 또 많은 곡식을 빼앗겼다. 그리하여 아저씨네는 할 수 없이 그 곳을 떠나 이 곳 열두 삼천리'벌 벼 고장으로 오면 좀 나을가 해서 이사를 왔다. 그러나 여기 와서도 해마다 물 걱정, 비료 걱정을 하다가 가을에 가서 곡식을 좀 거두어 들이면 역시 지주놈이 다 빼앗아 가고 말았다.

아저씨의 지난날은 실로 눈물과 한숨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던 그러한 나날이였다.

그러나 오늘 아저씨네 생활은 얼마나 몰라 보게 달라졌는가!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가 되여 물 걱정, 비료 걱정, 소 걱정 없이 기계로 헐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해마다 소출은 높아 가서 생활은 날로 향상되였다. 협동 농장이 갓 조직 된 해 가을 아저씨네는 벼 82 가마니를 분배 받고도 기뻐서 춤을 추였다. 그런데 우리 당의 옳바른 농업 정책으로 해마다 풍년이 들어 재작년에는 144 가마니, 작년에는 185 가마니를 분배 받았다. 그런데 올해는 협동 농장이 조직 된 첫해에 비하면 근 5 배나 되는 392 가마니의 벼와 수백 원의 현금을 분배 받게 되였다. 해방 전에는 벼 100 가마니만 타작하는 지주를 보고도 대단하다고들 했는데 이제 정말 아저씨네는 옛날 지주놈 부럽잖게 살게 되였다.

식량이 그득그득 차 있는 쌀독들과 훌륭히 갖춘 가장집물들, 이제 무엇이 더 부러울 것이 있겠는가!

《수상님께서는 금년에 우리 문덕군이 군'적으로 벼 정당 평균 4 t 700 kg을 냈다고 우리 군에 근위 1 급 군의 영예를 주시고 군내 모든 협동 농장원들을 표창하시였단다. 그리고 우리 협동 농장에다는 벼 정당 평균 5 t 300 kg을 냈다고 이처럼 딴 데보다 더 큰 표창을 해 주시구, 그러니 래년에는 정당 6 t을 내서 이 은혜에 보답해야겠다. 그러자면 우리 당 제 4 기 제 7 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래년에는 논도 더 많이 풀고 2모작도 하고 자급 비료도 더 많이 내야 하지.》

소년단원들을 둘러 보시며 힘있게 말씀하시고 난 아저씨는 두둥실 흥겨운 춤판에 끼여 드시는 것이였다.

입으로 불면 왜 빨리 식을가요?

우리는 뜨거운 물을 마실 때 빨리 식으라고 훌훌 불고 마십니다.

물을 불면 물 표면에는 잔 물'결이 생겨 공기와 접촉되는 면적이 많아져 뜨거운 물은 그 만큼 열을 공기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 표면을 불면 뜨거운 수증기가 빨리 날아 나므로 뜨거운 물은 그 만큼 빨리 식게 되는 것입니다.

—황남도 재령군 재령 초등 학원 단 제 4 분단 리 성춘 동무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손 병 도

학원에 들어 온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 년 동안 성춘 동무는 계속 최우등을 하고 있다.

착하고 꾸준한 성춘 동무는 모든 최우등생들이 그러한 것처럼 45 분 수업 시간을 귀중히 여기였다. 그 시간에 배운 것은 그 시간에 리해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언제나 그의 머리에서 떠날 줄 몰랐다. 그러기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꼭 학습장에 써 넣고 질문 시간이 되면 선생님께 문군하였다. 그래서 애매하게 알고 넘어 가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그는 늘 수업 시간에 리해한 지식은 복습을 통하여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그 날 배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씩 보고 다음 날 학습에 참가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활로 여기고 한 번도 어겨 본 일이 없다.

그 날 저녁 두 시간 복습 시간에는 선생님이 내 준 숙제를 끝 마치고 그 날 배운 가운데서 새로운 어휘, 산수에서 길이, 무게, 시간 등에 대한 측정 단위와 체적, 면적 구하는 공식들, 로어 단어 등을 수첩에 써 넣군 한다. 다음 날 아침에 또 한 시간 복습을 하는데 이때에는 전날 배운 것을 다시 한 번 외워 보고 읽어 보고 써 보고 한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녁 복습 시간에 동무들과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다. 서로 돕고 배워 주면서 겨우 숙제를 끝마친 때였다.

때마침 취침종이 울렸다.

성춘 동무는 다른 동무들의 학습을 돕다나니 아직 자기가 계획했던 그 날의 학습을 채 끝내지 못했던 것이다.

동무들은 밖에 들락날락하면서 취침 준비에 서둘렀다.

성춘 동무는 《아니다. 오늘 학습 계획을 래일로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 먹은 성춘 동무

는 동무들 몰래 학원 교실로 달려 나갔다.

이리하여 이 날도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끝내 단어장 수첩에 새 어휘, 로어 단어, 산수 공식들을 적어 넣고서야 돌아 와 포근한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힘들여 만든 단어장을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서 짬만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펼쳐 보고 외우군 하였다. 이러하여 보풀이 일 정도로 되면 또 새 두껑을 해 씌워 가지고 다닌다.

그의 학습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관찰과 실험 실습은 물론이고 항상 실생활 속에서 배운 지식을 익히고 새 지식을 얻군 하였다.

식물 과목에서 《활엽수와 침엽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학원 주변에 있는 소나무, 이깔나무, 뽀뿌라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등을 하나 하나 관찰하면서 잎이 넙적한 나무와 잎이 바늘처럼 뾰족한 나무들의 겨울과 여름철의 생활에 대해서 토론도 하였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익혀 가는 가운데 의문이 생기면 곧 선생님을 찾아가 물어서 자기의 산 지식으로 만들군 하였다.

성춘 동무는 자기 학습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언제나 분단을 생각하고 반을 생각하였다. 성춘 동무네 분단에서도 다른 분단과 같이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하였을 때였다.

성춘 동무네 반에는 학업 성적이 낮은 최 동무가 있었다. 그는 장기간 눈'병으로 학습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결과 동무들을 따라 오지 못 하였다.

성춘 동무는 최 동무의 첫 방조자로 되였다.

성춘 동무는 먼저 그의 학습장을 깨끗이 정리해 주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때로는 밤 1시가 되여도 피곤을 모르고 열심히 학습을 방조하였다. 최 동무 역시 성춘 동무의 열성에 감동 되여 기어코 동무들을 따라 가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성춘 동무는 최 동무에게 문제를 내 주고 혼자서 풀게 하고 거기서 잘 못된 것을 다시 배워 주고 또 풀어 보게 하였다. 시험 때가 되면 성춘 동무의 마음은 몹시 초조해 지군 하였다.

최 동무가 어떻게 될가 해서였다.

한 번은 국어 시험 때인데 최 동무의 학습에서 아직 철자법과 띄여 쓰기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 성춘 동무는 국어 학습 지도에서 읽고 새 어휘 가르치는 데만 힘쓰고 바로 거기에 힘을 적게 돌리였다는 것을 느꼈다. 이리하여 그 이후에는 천천히 읽어 주고 쓰게 하는 련습도 하고 또 국어 책에서 한 문장을 골라서 모두 붙여 쓰고 띄여 쓰기에서 잘 못 된 것을 찾아 내게도 하였다.

이렇게 최 동무의 학습에서 약한 것을 찾아 낸 다음에는 거기에 힘을 넣어 가르쳐 주고 방조한 결과 드디여 최 동무는 우등생으로 되였다.

분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분단 동무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성춘 동무의 모범은 학습에서만이 아니다.

언제나 착하고 부지런한 성춘 동무는 분단의 모든 생활에서 집단의 앞장에 섰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남을 시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행동하고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날마다 남보다 먼저 교실에 나가 교실 청소를 하군 하였으며 학원 주변을 청소 미화하는 사업에도 앞장에 섰다. 그는 학원 운동장이나 주변에서 놀다가도 검불 하나라도 보이면 거저 지나는 법이 없이 꼭 집어서 오물통이나 휴지통에 가져다 버리군 하였다.

그는 몸 차림도 항상 깨끗하다. 붉은 넥타이는 늘 빳빳하게 손질해서 규정 대로 매고 다닌다.

이렇듯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인 성춘 동무는 오늘 분단 전체 동무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기에 모범 분단 칭호를 받던 날 그는 집단 앞에서 높은 칭찬을 받았던 것이다.

오늘 그의 가슴에는 소년단원의 휘장과 함께 중앙 모범 소년단원의 휘장과 모범 분단 휘장이 가지런히 반짝이고 있다.

지금 그는 분단 벽보 주필로서 벽보 《붉은 마음》을 정상적으로 발간하면서 분단 소년단원들 속에서 아름다운 일을 더 많이 찾아 소개하여 모든 동무들이 모범을 따르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제 9 회)

박 응 호

그림 양 재 혁

9.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날 밤으로 원쑤놈은 군 사회 안전서로 데리고 갔다. 뒤미처 천룡이도 군으로 올라 갔다.

아침에 군에서 련락을 받고 명길의 어머니도 갔다.

어머니가 군 사회 안전서에 들어 섰을 때 직일관은 곧 그를 서장실로 안내하였다.

서장은 반가운 웃음을 띄우며 문에까지 걸어 나와 맞아 주었다.

《오실래기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의자를 권하였다.

《이번 범인을 체포하는 데는 명길이의 공로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었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윽고 어머니가 서장의 얼굴을 바라 보며 물었다.

《좀 확인할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해서 오시라 했습니다.》

서장은 자못 즐거운듯 넌지시 어머니를 바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궁금해서

《듣자니 그 놈이 나를 어떻게 하자고 했다는데 그게 어떤 놈인지요?》

어머니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기라도 하듯 서장의 낯빛을 살폈다.

《청산당한 악질 지줍니다.》

서장이 한 마디로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책상 우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키 큰 안전 군관이 범인을 데리고 들어 왔다. 머리도 빤빤히 깎고 수염도 쳤다.

그 놈의 얼굴을 보자 어머니는 화닥닥 의자에서 일어 났다.

《오 동학이?》

《알아 맞혔군요. 바로 그 놈입니다. 이 자는 청산 당한 뒤론 김 성춘이란 이름으로 숨어 다녔지요. 이 놈은 미군놈들이 쫓겨 간 후 고향에서 떠나 이 곳으로 기여들어 파괴 공작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푸들푸들 떨렸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퍼런 불이 펄펄 일었다.

이 놈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놈의 손아귀에서 지낸 가지가지 피눈물 나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머리 속에 떠올랐다.

《네 놈이, 네 놈이 아직도 살아 있었구나…》

어머니는 이를 새려물며 집어 삼킬듯 뚜벅뚜벅 놈 앞으로 걸어 갔다.

오 동학은 우뭉하게 꺼진 눈'구멍으로 옛날의 머슴이였던 길녀를 쏘아 보고 있었다. 그 속에는 원쑤의 잔인한 칼날 같이 차거운 빛이 그대로 빛나고 있었다.

서장은 험악해진 얼굴로 원쑤에게 다가드는 어머니를 간신히 부축하여 자리에 앉혔다.

어머니는 너무도 치가 떨려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작업반장 동무께는 아들이 있였지요.》

서장은 여전히 조용한 음성으로 물었다.

어머니는 목이 말라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장이 부어 준 물을 마시고서야 아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름은 억철이라고 했다.

《아들이 죽은 것을 봤습니까?》

《아무리 보여 달라고 해도 의사놈은 벌써 화장을 했다고 말하드군요.》

《그럼 보시지 못 했단 말씀이죠?》

《…》

어머니는 지난날의 쓰라린 생각이 되살아 나 주루루 눈물을 흘렸다.

《죽었다는 아들의 모상을 기억하십니까?》

《난 어머닙니다.》

《아기 때 모습이니 다 자란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게 아닙니까.》

서장은 웬 일인지 죽은 억철이의 이야기를 그냥 계속했다.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서장이 그 애에 대해 묻는지를 알 수 없어 잠시 서장의 얼굴에서 무언가 읽어 보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를테면 무슨 표식이 되는 거라든가 또는 모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없는지요.》

《있어요. 그 애가 앓을 때 아버지가 가슴에 뜸을 많이 놓았으니 살았으면 그 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은 명길이 아버지가 어떻게 희생됐습니까?》

《…후퇴하다 고향에서 치안대놈들에게…》

어머니는 그만 억이 차서 말끝도 맺지 못 했다.

서장이 증오에 찬 눈으로 오 동학이를 쏘아 보았다. 그러자 오 동학이는 슬며시 고개를 딴 데로 돌렸다.

《이 자가 바로 명길이 아버질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예?!》

어머니는 솟으라쳐 놀라며 천천히 오 동학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의 눈'길에 서린 증오와 분격을 느끼자 오 동학의 아래'도리는 가늘게 떨렸다.

서장이 안전 군관에게 눈짓하였다. 그는 오 동학을 앞세우고 나갔다.

어머니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서장은 우는 어머니를 그냥 놔 두었다. 그의 눈에도 계급의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와 서구픈 기색이 어려 있었다.

이윽고 서장은 어머니 앞에 세 켤레의 초신을 내놓았다.

《이걸 좀 보십시오. 이건 초신이 아닙니다.》

하며 서장은 초신'날을 풀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그는 초신'날에서 종이 쪽지들을 하나하나 뽑아 내여 책상 우에 맞춰 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토지 문서였다.

《이렇게 지주놈들이란 지독하지요. 오 동학이는 땅굴 속에 숨어서 이렇게 초신을 삼아 토지 문서를 보관했지요. 그리구 이걸 좀 보십시오.》

하며 다시 접은 종이 쪽지를 펴 보였

다. 언젠가 천롱이가 잊어버리고 갔던 땅이며 산림이 적혀 있는 그 쪽지였다.

《이 놈은 자기 재산을 물려 주려고 천롱이를 데리고 고향에 기여 들어 가 그 아이에게 자기 토지와 산림을 일일이 가리켜 주었고 반드시 이 땅과 산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바로 그 자가 그려서 천롱이에게 준 것입니다.》

어머니는 서장의 말을 듣고서야 다음날 아침 천롱이가 왜 급히 달려 왔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때 그의 눈'자위에 퍼렇게 멍이 든 흔적은 바로 오 동학이 때려서 생긴 상처 자욱이였던 것이다.

서장은 초신이며 종이 쪽지를 한 옆에 치워 놓으며 말을 계속했다.

《오 동학이 처가 죽은 건 자살이 아니라 바로 그 놈이 죽인 겁니다.》

《아니 뭐라구요?》

어머니는 어제 밤 명길에게서 들은 일이 있어 적으기 놀래였다.

《녀편네가 아이를 뱃는데 이 놈은 아이가 태여나면 어딘가 자기 얼굴과 비슷한 구석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손을 써서 죽인 후 목을 매 죽은 것처럼 연극을 꾸몄답니다. 세상에 악독한 놈들이지요.》

《그런데 내가 그 놈의 머슴 살 땐 그 녀자는 보지 못 했는데요.》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이렇게 질문했다.

《해방되기 전 전 해에 반장 동무가 고향을 떠나던 해에 본처는 죽고 다시 서울서 기생을 하던 녀자를 또 끌어 들였지요.》

그제야 어머니는 여지껏 오 동학이 놈을 곁에 두고도 모르고 지낸 까닭을 알았다.

《자기를 위해서는 제 녀편네까지도 서슴 없이 죽이는 놈이고 보니 왜 반장 동무를 그냥 두려 했겠습니까… 그 놈은 미국놈들을 기다리다 지쳐나서 이제는 세상에 나와 가장하고 살려구 생각했는데 걸리는 게 반장 동무였지요. 어느 때건 만나리란 걸 타산했지요. 그래 어제밤으로 반장 동무를 없애 치우고 천롱이를 데리고 도주하려 한 겁니다.》

서장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반색을 하며

《자! 그 얘긴 그만하고 기쁜 이야기나 하십시다.》

하며 옆 방문을 열더니 누구에겐가 한 두 마디 지시를 했다. 서장은 그 대로 문'간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이윽고 문'간에 눈이 텅텅 부은 천롱이가 나타났다. 서장은 다정히 그의 어깨를 그러안으며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 왔다.

《천롱아…》

어머니가 반가히 소리쳤다.

예나 다름 없는 살틀한 어머니의 부름에 천롱이는 눈물부터 앞섰다.

오 동학이의 정체가 들어 난 이 시각에 천롱이는 어머니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일어 서며 천롱이의 수그린 고개를 두 손으로 일으켜 세웠다.

《반장 동무…천롱이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서장은 확신 있는 어조로 웃음을 머금고 말하였다.

《네?》

《명길이 하고 비슷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전부터 그렇게 보아 오긴 했지만 세상엔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지요.》

어머니는 반신 반의하는 얼굴로 새삼스러히 천롱이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천롱이는 더욱 고개를 들지 못 하였다.

《판명된 바에 의하면 이 애가 바로 죽었다던 반장 동무의 억철입니다.》

《아니 뭐라구요?!》

어머니는 펄쩍 놀라며 한 두 걸음 뒤로 물러 나기까지 했다.

천롱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 동학의 진술에 의하면 그 놈은 아들이 없는 것을 한탄하다 마침 반장 동무의 아들을 빼앗을 궁리를 했지요. 그래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는 반장 동무에게는 죽었다고 의사놈과 짜서 속여 놓고는 이 애를 유모에게 맡겨 길렀습니다.》

이 뜻밖의 말에 어머니는 전기에 맞은 사람마냥 한 동안 초'대처럼 서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는 와락 천롱이를 그러안더니 급히 저고리 단추 한 두 개를 벗겼다. 그의 가슴에는 아기 때 생겨난 상처까지 생생히 남아 있었다.

《억철아!》

어머니는 천롱이를, 아니 억철이를 꽉 자기 품에 껴 안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어머니는 다시는 억철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듯 그를 꽉 껴 안은 채 떨리는 한 손으로 그의 머리며 어깨를 더듬었다.

《어머니…》

억철이는 터져 나오는 울음과 함께 처음으로 자기를 낳아 길러 준 어머니를 불렀다.

창'가에 비껴 서서 먼 하늘을 바라 보고 섰던 서장의 눈에도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다.

(끝)

(왜 그럴가요?)

바람이 불면 왜 더 추운가?

사람의 체온은 보통 36,4 도 입니다.

우리의 체온은 주위의 공기를 덥게 해 줍니다.

주위의 공기가 차거우면 차거울수록 우리의 체온은 그 차거운 공기를 덥게 해 주기 위하여 많은 열을 내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두텁고 더운 내복을 입는 것은 바로 몸의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오면 체온에 의해 따뜻해졌던 주위의 공기는 사라지고 새로운 공기 즉 차거운 공기가 다시 우리의 주위를 둘러 싸게 됩니다. 때문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이 공기의 교체는 심해지고 우리의 몸으로부터는 열이 더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왜 깨질가요?

겨울에 유리로 만든 그릇이나 사기 그릇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릇이 깨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가요?

물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식어지면 줄어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릇 안 벽은 바깥 벽보다 먼저 뜨거워지면서 팽창됩니다. 그러나 그릇 바깥 벽은 아직 가열되지 않아 팽창되지 않고 있어 갑자기 그릇 안 쪽의 큰 압력을 이겨내지 못 해 그릇은 깨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난로는 왜 주름 잡힌 철판이나 철로 만들었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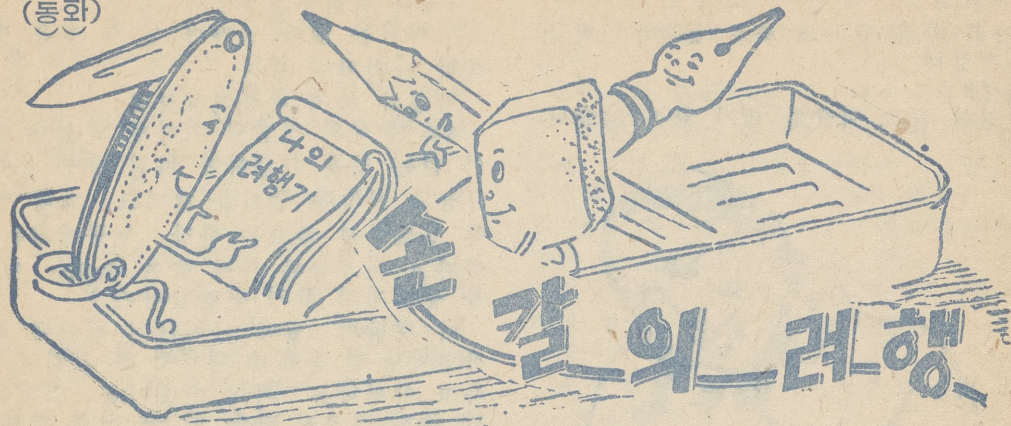
난로를 주름 잡힌 철로 만든 것은 난로에서 열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름잡힌 철로 난로를 만들면 주름을 잡지 않은 것보다 표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만큼 열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기의 열로 방을 덥히는 라지에타도 증기가 지나 가는 관을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차 용 구

그림 김 성 엽

점심 시간이 되자 영남이의 필통 안은 갑자기 소란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책상 우에 나갔던 연필이랑, 펜이랑, 지우개 고무랑이 들어 와서 제각가 제 느낌을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은 손칼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남이가 오늘은 연필을 안 쓰고 줄곧 펜만을 썼기 때문입니다.

《얘 손칼아, 그리고 또 새 소식이 있는데…》

언제나 새 소식을 먼저 아는 펜은 또 이야길 꺼내 놨습니다. 펜은 무엇이나 다 제가 쓰니까 아는 것이 많아서 박사 칭호를 받는다고 우쭐댄답니다.

《글쎄, 조선 로동당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있은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각 곳에서 살림에 소용 닿는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온다지 않니, 근데 참 오늘은 너 때문에 굉장한 웃음판이 터졌단다…》

《뭐, 나 때문에…?》

손칼은 펄쩍 뛰면서 하얀 닉켈 도금을 한 얼굴색까지 파래지는 것이였습니다.

《응, 너 때문이지 뭐, 글쎄 선생님이 영남이더러 네 칼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서 어떻게 네 손에 들어 왔는지 물었단다. 그러자 영남인〈예, 아동 백화점에서 샀으니까 우리 학교서 한 삼백 메터 거리가 될겁니다〉하고 대답했단다! 해해해, 아이구 우스워서…》

그래서 필통 안에서는 왁자그르르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찌나 웃어 대는지 필통 뚜껑이 들썩거리는 판입니다.

동무들이 너무나 웃는 바람에 쌀쌀해져 한편 구석에 빗 서 있던 손칼은 불쑥 주머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나의 려행기》—이것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나는 펜한테서 그 려행기를 얻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려행기는 우리가 모르는 땅 속 나라의 글로 되여 있기 때문에 펜의 번역을 통해서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였답니다. 이 이야기인즉 다음과 같습니다.

× ×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 일이랍니다.

《아하 알았습니다.〈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소가 말할 때〉말이겠지요. 이야기'군의 첫시작은 정해 놓은걸요.》

아닙니다! 이것은 소도 호랑이도 그리고 벌레 한 마리도 아직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아득히 먼 옛날 이야깁니다.

손칼의 이야기의 첫시작은 천년이나 만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10억 년이나 20억 년 전이랍니다.

그 때 땅 속 나라에는 무쇠아들 묵직이랑, 바위아들 차돌이랑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닉켈의 아들 반들이도 살고 석탄 할아버지 검돌이, 석회석 할아버지 흰돌이도 살았지요.

땅 속 나라의 이 꼬마 공민들은 언제나 땅 우에서 맑은 하늘을 이고 서늘한 바람을 쐬우며 뭐든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기가 평생 소원이였습니다.

그러나 심술쟁이 땅껍질이 굳고 두꺼운 돌포단과 흙이불을 가지고 이 꼬마들을 해'빛도 볼 수 없게 땅 속 깊이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 때 묵직이네랑, 반들이랑, 차돌이랑은 1,000도도 넘는 펄펄 녹은 마그마라고 부르는 돌물이였습니다.

오래고 오랜 동안 묵직이네는 결박된 황소처럼 용을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화산이 되여 뛰여 나려고도 했고, 지진이 되여 땅 속에서 해방되려고도 했지만 그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그마 돌물은 팟팟 굳어지고 묵직이네는 차돌이네랑 반들이네랑이 한데 얽혀 커다란 광상이 된 채 어두운 땅 속 나라에 영영 갇히고 말았습니다.

바깥 세상에 풀려 나가고 싶은 묵직이네 욕망에 기름을 치고 키질을 한 것은 세상에서 일등가는 려행가인 물의 아들 졸졸이였습니다. 하늘에도 땅속에도 마음 대로 다니는 졸졸이가 한 번은 샘이 되여 땅속 깊이 깊이 려행하다가 묵직이랑을 만났습니다.

이래서 묵직이네는 한림 학사 만큼이나 아는 게 많은 졸졸이 한테서 신기한 이야기를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백만년쯤 전에 사람의 조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무쇠 아들을 아주 좋아한단다. 그래서 기계 부대를 시켜 고집쟁이 땅껍질을 들이치고 그 속에 갇힌 무쇠 아들들을 해방한단다…》

《아니 그게 정말이야!》

묵직이는 그게 너무 뜻밖인듯 갈아 다우쳐 물었습니다.

《정말 아니구!…사람들은 너희네를 불러 내다가 별의별 기계를 다 만든단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살기 편하게 만드는 데 너희네가 한 몫 단단히 본다거든.》

그러면서 졸졸이는 사람들이 무쇠아들만이 아니라 땅 속에 갇힌 온갖 보물을 다 찾아 낸다는 것과 더 많은 땅 속 보물을 찾기 위해 새록새록 새로운 기계들을 연구해 낸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묵직이는 벌써 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흠, 그렇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잘 났단 말이지, 그럼 그렇테지, 암 그렇구 말구…)

그 때부터 묵직이는 제 자랑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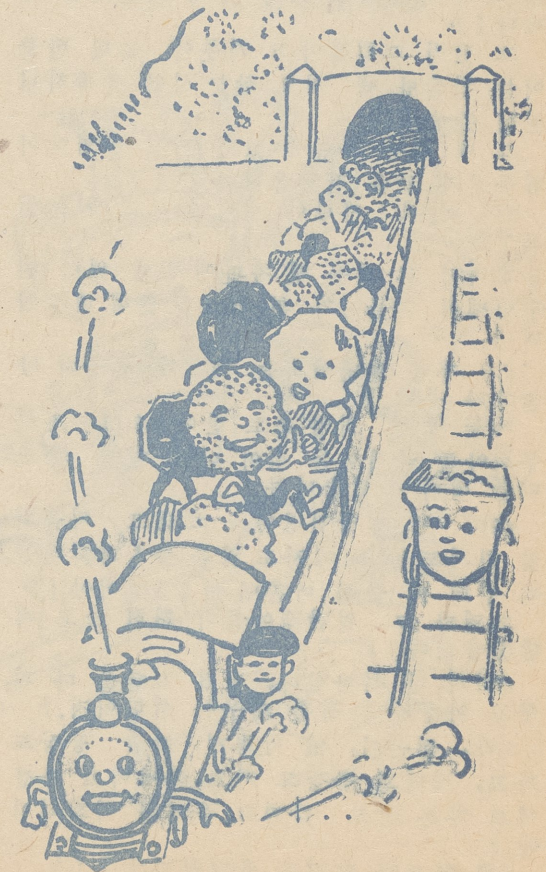
《난 이 번에 땅 우에 가면 졸졸이가 말해 주던 그 논밭을 간다는 뜨락또르가 될테야, 아니 우리 광석들을 꽝꽝 퍼 싣는다는〈장백호〉엑쓰까와똘이 되겠어, 아니 집짓는 키다리 기중기라는 게 될가? 물'고기를 잡는다는 배가 될가? 딴 하늘을 씽씽 난다는 로케트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지! 여하튼 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니까 이거지 이거야!》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혼자 으시대던 묵직이는 반들이랑을 내려다 보면서 가엽다는듯이 말을 보탰습니다.

《근데 반들이랑 차돌이랑은 뭣에 쓰겠니? 가엽고 불쌍하구나. 흥 제가 못 났으니 할 수 없는 일이지, 해해해. 차라리 여기 어둠 나라에서 영영 잠 자는 게 났겠어!…》

바로 그 때 꽝 파르릉! 하고 요란한 폭발소리가 났습니다.

《야! 졸졸이가 말하던 그 화산이 터지는 모양이구나!》

묵직이도, 반들이도, 차돌이도 얼'김에 웨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생산의 첫 공정을 맡고 있는 광

산 로동자들이 더 많은 광석을 캐기 위해 새로운 발파법을 시험한 것이였습니다.

묵직이네는 폭풍에 얻어 맞은 물'고기들처럼 정신이 뗑 해가지고 적재기랑, 콤베아랑, 광차랑을 바꿔 타면서 1천 메터나 되는 땅우로 올라 갔고 다시 기차를 바꿔 탔습니다.

기차가 쩡쩡 달리고 씨원한 바람이 얼굴을 들이칠 때야 묵직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겨우 제 모습이 변한 것도 알았고 앞뒤차에 저희들과는 다른 흰돌들과 검은 돌들이 실린 것도 봤습니다.

몇 10억년만에 처음으로 쳐다 보는 맑은 하늘, 처음으로 맘껏 숨쉬는 씨원한 공기, 밝은 세상에서 묵직이는 기분이 좋을대로 좋아졌습니다.

묵직이는 자기와 한 뎅어리의 광석이던 반들이랑 차돌이랑한테 자랑보자기를 터쳐 놨습니다.

《야, 세상에서 늬들보담 더 불쌍하고 못난 게 없구나, 자 봐라, 기차도 자동차도 저기 송전탑도 모두 우리 쇠붙이들 아니냐!》

그 말에 그렇잖아도 기분이 없던 반들이는 한숨만 푹 쉬고 살눈'섭이 축축하니 젖어 갔습니다.

그 때 건넌 차판에 있던 꺼먼 수염쟁이 껌돌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 거 패 자랑이 심하군, 그게 누군고?》

그러자 그 맞은 편 차판에 앉아 있던 흰 수염쟁이 흰돌이가 흰 수염을 쓸며 대꾸합니다.

《거 저만 잘난체하는 게 아마 무쇠 아들인가 부이.》

저를 두고 비양'조로 말이 오고 가자 무쇠아들 묵직이는 성이 나서 땅땅 쇠'소리를 내며 을렀습니다.

《야, 너 껌정귀신아, 그리고 차돌처럼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놈! 너희네들이 뭔데 이 무쇠 어른에게 참견이야!》

그러자 그 령감쟁이들이 허허 웃고 대답했습니다.

《허허 난 석탄일다, 별별 요술을 다 피우고 아무거나 활활 태우는 석탄이지.》

《아, 젊은이, 난 이렇게 야금 공장도 가고, 세멘트 공장도 가고, 카바이트 공장에도 가는 쓸모 많기로 유명한 석회석이야.》

《뭐 쓸모가 많기로 유명하다구?!》

뚝바위 같은 무쇠아들도 씩씩거리더니 벌떡 일어 나서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나로 말하면 이 세상 일등가는 물건이다. 온 세상의 4%가 우리 철이요, 세상에 안 씌이는 데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릴 무척 존경해서 공업의 왕님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다. 지금이 차'간에도 니켈이랑이 있지만 너희나 마찬가지로 세상 쓸 데 없는 물건짝이야! …그리고 난…》

그러나 무쇠아들 묵직이는 더 웨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기세 좋게 달리던 기차가 묵직이보다 더 큰 소리로 기적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하늘 꾹 닿게 크고 흰 구름 같은 연기를 뿜고 시뻘건 쇠'물이 콸콸 쏟아지는 용광로가 있는 공장에 닿은 것입니다. 《자력 갱생》이란 커다란 구호판이 걸린 용광로 형제가 나란이 서 있는 공장입니다.

× ×

묵직이가 스키프에 실려 아찔하게 높은 용광로 꼭대기에 올라 가서 확확 달아 오른 용광로 배'속에 들어 갔을 때 묵직이는 바로 그 검돌이들이 훨훨 타면서 저희네를 녹여 주는 걸 봤습니다.

묵직이는 검돌이가 1,800도의 불'길을 활활 뿜노라고 정신 없는 틈을 타서 살짝 녹아 가지고 시뻘건 쇠'물이 고인 용광로 밑으로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쇠'물에는 몇 십억년 전 마그마 돌물처럼 무쇠아닌 물건들이 많이 섞여 있었답니다.

《야, 이게 돌이랑, 석탄재랑, 류황이랑, 린이랑 별의별 잡탕이 다 있구나.》

《정말! 이러다간 어떻게 좋은 철이 되겠니?》

《옳아, 그 잡동산이들을 빨리 내쫓자.》

묵직이는 이말에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쇠'물들과 함께 벌렁벌렁 끓으면서 잡탕 돌물들을 내쫓아 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게 될 번이나 한 일입니까!

《아이쿠, 인젠 도루 옛날 마그마 신세구나!》

묵직이가 이렇게 한탄하는 때 웬 흰 수염쟁이가 텀벙 뛰여 들었습니다.

《어허 뜨겁군, 어허 잘도 녹았군…》

그것은 흰 수염쟁이 석회석이였습니다.

《아니 이거 흰돌이 놈이구나! 썩 나가 썩! 그렇잖아도 잡탕이 많아서 옛날 마그마 한 가진데!》

그러자 흰돌이도 묵직이를 알아 봤습니다.

《허 여전하시군, 이봐 덤벼도 좀 알고나 덤비게.》

《옳습니다.》

다른 무쇠 아들들이 모두 손'벽치며 웨치는 바람에 그는 벙벙해져서 구석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뜻밖의 일을 구경했습니다.

글쎄 그 흰돌이 할아버지가 쇠'물바다우를 춤추며 맴돌면서 노래 부르는게 아닙니까.

애들아, 동무들아
카바이트도 되고 옷감도 되고
세멘트도 되고 비닐도 되는 석회석들아
오늘은 무쇠아들에게서
잡것들을 뽑아 주세.

흰돌이 할아버지가 선창을 떼자 다른 석회석들이 받았습니다.

옳지 옳지 그러세
무쇠아들일랑 내려 가고
불순물들일랑 올라 오게.

그러자 참 신기한 일이 일어 났습니다. 한데 어울려 부글부글 끓던 쇠'물에서 잡것들이 떨어져 나와 모두 우에 모이는 게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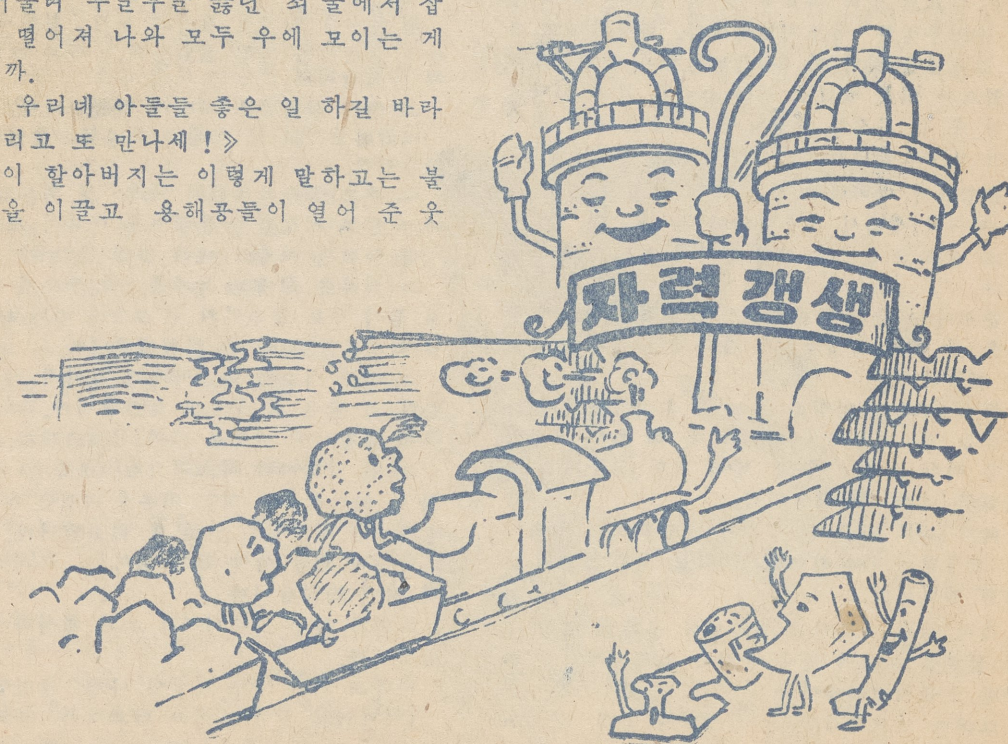
《자, 우리네 아들들 좋은 일 하길 바라네, 그리고 또 만나세!》

흰돌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불순물들을 이끌고 용해공들이 열어 준 웃문으로 쏜살처럼 빠져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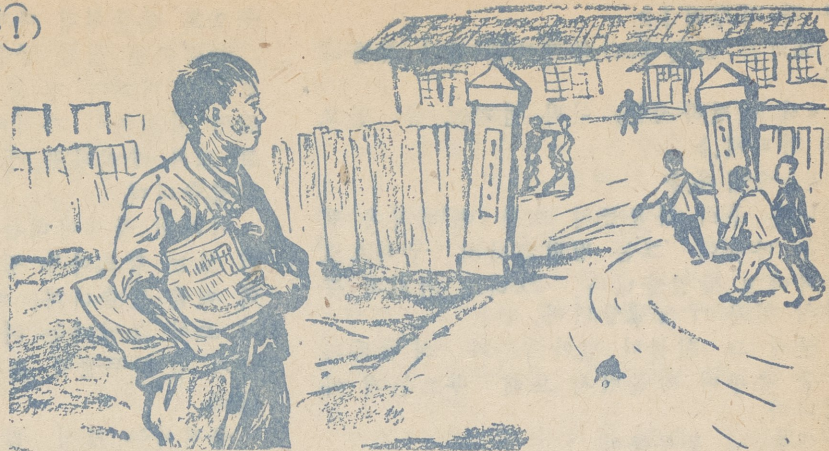
묵직이는 정말 꿈을 꾸는지 요술에 홀렸는지 머리가 뗑 했습니다. 글쎄 그 막돌갈던 석회석이 자기네를 그렇게 결정적으로 도와 주리라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이래서 묵직이네는 탄소가 3~4.5% 들어 있는 칼도마와 같은 선철 뎅어리가 되여 배를 탔습니다. 배에서는 곳곳 사람들이 모아 보냈다는 파철들이 먼저 타고 있다가 길'동무들이 온다고 막 기뻐해 줬습니다.

묵직이는 경험 많은 파철한테서 배가 제강소에로 간다는 것도 알았고 거기 전기로에서 다시 녹아 탄소가 겨우 0.04%에서 기껏 2%까지 밖에 안 포함되는 강철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할아버지가 못 다 뽑아 간 망강이랑, 규소랑, 린이랑, 류황이랑도 거의 다 뽑아 내여 굳고도 질기고 두드려 늘굴 수도 있는 강철이 된다는 것도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남조선을 잊이말자!)

문길이의 결심

오 선학

마가을 바람은 한결 쓸쓸하였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ㅅ《국민 학교》에 신문을 배달하고 나오는 문길이의 발'걸음은 대중 없이 무거웠습니다.

교실에서 들려 오는 학생들의 글'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에 그 교실에 앉았던 자기의 네번째 줄 맨 앞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더구나 그의 귀뿌리를 파고 든 것은 지금도 창문 밖으로 울려 나오는 듯 한 정다운 리 선생의 우렁우렁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담임 선생님을 찾아 가 《선생님》 하고 불러 보고 싶었으나 신문 배달을 해야 오늘도 살 수 있다는 피치 못 할 사정이 문길이의 욕망을 사정 없이 꺾어 버리였습니다.

문길이의 머리에는 자기가 저 교실에 앉아 있던 마지막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날도 오늘 아침처럼 안개가 짙은 날씨였습니다.

문길이는 학급 반장으로서 남달리 뛰여나게 공부를 잘 하여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허지만 그 날 아침도 굶고 온 문길이였답니다.

그는 허기진 배를 달래다 못 해 교수 시간이지만 적삼 주머니 속에 넣어 왔던 칡뿌리를 질근질근 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 못 해 허리가 구부러드는 형편이니 선생님의 가르치는 말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다른 애들이나 선생님이 볼가봐 책상 우에 얼굴을 파묻고 입을 놀리는 그의 가슴은 자꾸만 두근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어요. 선생님의 눈에 들키고야 말았으니까요.

선생님의 얼굴에는 단번에 흐린 빛이 어리였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문길이의 사정을 그렇게는 알지 못 했으니까요.

《문길이!》

이렇게 언짢게 부르는 선생님은 그가 분명 무슨 군'입질이나 하는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문길이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한참만에 그가 선생님의 넓직한 손'바닥 우에 내여 놓은 것은 씹다 남은 굵직한 칡뿌리였던 것입니다.

새파랗게 질린 문길이의 량볼을 소리 없이 적시는 눈물 방울은 헌 고무신을 얼룩지게 하였습니다.

뒤'자리에 앉았던 경상도 내기 길수가 《선생님! 문길이가 아침 굶었심더.》 하고 그를 두던해 나섰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고 한없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공부 시간에 이런 것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선생님은 문길이를 타일러 보내긴 했지만 맺혔던 가슴이 내려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끝내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집으로 돌아 가는 문길이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마음이 편할 리 있었겠습니까.

그 공부 시간이 문길이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답니다. 그 이튿날부터 문길이의 책상은 비여 있었습니다.

그 날 저녁따라 학교에서는 《공납금》을 물지 못한 아이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가난한 선생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야 돈이 없이는 허'수고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앓던 어머니마저 그만 애석하게 돌아갔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 놈의 망할 세상! 나는 언제나 학교로 갈 수 있을가?)

그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하였고 앞길이 캄캄하였습니다.

그 때로부터 고아가 된 그는 책가방 대신 깡통을 차거나 구두닦기 나무통을 메고 길'가를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길'가에서 책가방을 멘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국민 학교》에 다니던 때가 그리웠고 숙제도 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였답니다.

꼭두 새벽부터 어둠이 깃들 때까지 거리를 헤매여도 한 끼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던 문길이의 처지였으니까요.

어느날 리 선생님이 주선해 주는 대로 그는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힘에 부치도록 신문을 안고, 끼고 돌아쳐도 굶주림은 그림자처럼 좇아 다니였습니다. 그래도 기어이 학교에 가려는 마음은 그의 머리 한 복판 가장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배를 출출 굶으면서도 학비를 마련하느라고 돈이 생기면 꼬기꼬기 말아 적삼 주머니에 질러 넣었답니다. 한달이 지나고 석달이 지나도 돈은 불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부쩍 동해 났습니다.

오늘도 막상 자기가 다니던 학교 울타리를 나오느라니 가슴이 더욱 부글부글 끓는 것 만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원쑤놈의 세상이 불타 버렸으면 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큰 길로 접어드는 문길이는 하마트면 미친듯이 내모는 미군 트럭에 치울번 하였습니다. 그는 엎어지면서 신문 꾸러미를 떨구었습니다. 신문지는 온 거리에 흩어져 바람이 부는 대로 산산히 날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해맞은 문길이는 이리 엎으락 저리 엎으락 하면서 신문지를 주어 모았습니다.

죄다 모은 신문지를 꾸려 들고 황황히 가던 길을 재촉하던 그가 적삼 주머니를 만져 보니 그렇게도 아껴 가며 말아 두었던 돈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의 온 희망이 어린 돈은 신문 꾸러미를 떨어뜨린 바로 그 자리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발짝 뒤에 힐죽거리며 오던 미군 헌병놈이 돈을 집어 괴춤에 질러 넣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문길이는 달려 갔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여요. 인줘요…》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미군 헌병 놈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언짢은 기색으로 문길이에게 무시무시한 눈총을 쏘는 것이였습니다.

《어서 인줘요.》

《까뗌, 주은 사람이 임자야 비켜!》

《아니여요. 그 돈은 내가 학교에 갈 학비여요.》

미군 헌병놈은 시끄럽다는 듯이 카빙총 총탁으로 군복 소매를 붙잡는 그를 시궁창에 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달아 빼고 말았습니다.

이 때 뒤에서 그 광경을 보다 분함을 참지 못하던 나머지 양키놈에게 달려 가는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한참만에 그 양키 도적놈의 뒤꼬리를 놓치고 돌아 오는 그 아저씨는 신문 꾸러미를 그러안고 흐느껴 우는 문길이를 부추겨 일으켰습니다.

문길이가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그 고마운 아저씨를 치여다 보니 다름 아닌 리 선생님이 아니였겠습니까.

《선생님!》 하고 문길이는 선생님의 품에 와락 안기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개놈 같으니!》 선생님도 주먹을 부르쥐였습니다.

《문길아, 울면 놈들이 더 좋아 한단다, 일어나서 그 원쑤놈을 똑똑히 봐 둬라.》

선생님이 증오로 떠는 문길이에게 힘 있게 하는 말이였습니다.

문길이의 눈에서는 류황'불이 일었습니다. 그 류황'불은 원쑤가 달아 뺀 골목 쪽에서 좀곧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문길아, 미국놈이라는 게 바로 그렇단다. 그렇게 조선 사람을 업신 여기며 피눈물을 뺏아 간단다. 저놈들을 이 땅에서 내쫓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마음 놓고 살 수 없단다.

그새 너의 동무들도 많이 퇴학했단다. 정남이도, 길수도…》

《네?! 길수도요?》

《그렇단다. 바로 저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이 빚어 놓은 가난 때문이란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선생님의 입술은 분노로 떨리였습니다.

《선생님!》 하고 문길이는 선생님의 빛나는 눈'동자를 힘있게 바라 보았습니다. 그의 눈'길 속에는 선생님이 가리키는 길로 걸어 나가겠다는 굳은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방학간 반생활을 재미있게 진행하자

올 겨울 방학 우리는 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요?

반실도 아담하게 꾸리고 반 계획도 잘 짜서 방학 간 반 생활을 흥미 있게 조직합시다.

그럼 겨울 방학 간 소뎐단 반 생활을 어떻게 조직 할가요.

첫째로, 소년단원의 첫째 가는 임무인 학습을 더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반실을 아담하게 꾸리고 일과표에 따라 집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방학 숙제 공부를 잘 하며 반원들 속에서 뒤떨어진 과목들을 추켜 세우도록 서로 도와 주어야 합니다. 숙제 공부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으로 하게 하되 자체의 힘으로 하지 못할 문제들은 서로 돕고 이끌어 주면서 정확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숙제장을 서로 나누어 보면서 정확히, 그리고 깨끗이 했는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반에서는 배운 학과에 대한 토론도 하며 《물은 왜 우로부터 어는가?》, 《겨울철 토끼 기르기》, 《성애는 왜 생기는가?》, 《겨울철에 곤충들은 어디로 갔을가?》 등의 제목으로 과학 이야기 모임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리하여 방학 동안 하루에 2~3 시간 정도로 모여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학 기간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방학 기간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 학교 시절》,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은호리 소년들》, 《찌꼴새 소년 빨찌산》, 《소년 근위대》 등을 누구나 꼭 읽어야 합니다.

한편 반에서는 작문 짓기와 그림 그리기 등을 자주 조직하여 발표 모임도 가지며 전람회도 가지는 것은 아주 흥미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반에서는 지난 9월 18일부 《소년 신문》에 실린 해설 자료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토의되였는가?》를 가지고 독보도 하며 선생님과 상급 학년의 방조를 받아 그 내용을 잘 알도록 해설도 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민청 5 차 대회를 앞두고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보낸 민청 중앙 위원회 호소문 내용도 배우며 소년단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논하며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둘째로,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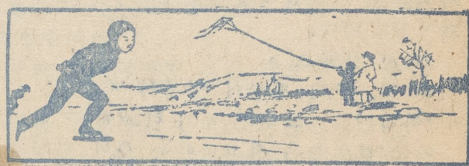
반에서는 아침 조기 체조를 하며 집체적인 공부가 끝나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일과표에 연 띄우는 시간, 얼음판에서 노는 시간을 정하고 연 띄우기, 팽이 돌리기, 스키, 스케트, 썰매 타기를 누구나 다 하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반들과 약속하고 로케트 (스케트) 부대, 땅크 (썰매) 부대, 빨찌산 (스키) 부대들의 친선 경기도 재미 있게 조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미리미리 썰매, 스케트, 스키, 팽이, 연 등 겨울 운동 기구들을 한 가지 이상씩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반 계획에 의하여 눈이 많이 온 날을 택하여 토끼 그물, 옹노 등을 준비하여 가지고 토끼 사냥을 떠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반에서는 조기 청소, 조기 운동도 하며 겨울 위생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춥다고 세수나 목욕을 게을리 하는 동무들이 없도록 날마다 위생 검열도 조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째로, 방학간에 소년단 반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썰매를 가지고 협동 농장 밭에 거름을 내는 일도 돕고 가마니 짜는 일, 유치원, 탁아소에 놀이'감을 만들어 보내기, 자기 집을 모두 모범 위생 가정으로 꾸리는 일 등 어른들의 일'손을 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생활을 마감 짓는 저녁 모임 때 누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를 알아 보고 반 일지에 기록하며 분단, 단 위원회에도 제기하여 《영예의 붉은 수첩》에 등록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반에서 재미 있는 생활들을 잘 하자면 반장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반장은 방학 동안에도 매 주 빠짐 없이 반 모임을 열고 반에서 하기로 한 일과 분단에서 받은 과업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자주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과업을 분공해야 합니다.

1964년 1월중 단, 분단, 반에서 할 일들

첫째 : 배운 지식을 다져 나가기 위한 사업

ㄱ. 방학 간 숙제를 잘 하며, 뒤떨어진 과목 학습을 추켜 세우기 위한 복습 조직.

ㄴ. 많은 문학 서적들과 과학 서적 읽기.

ㄷ. 방학 간 연구 소조들에서의 각종 실험 기구, 표본 만들기.

ㄹ. 학과 경연 대회,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 작문 짓기 대회, 시 랑송 모임 조직.

둘째 : 공산주의 교양 사업

ㄱ. 당 정책 학습

△《1964년도 아버지, 어머니들 앞에 나선 과업과 소년단원들이 할 일》을 내용으로 《분단 토론회》, 《꼬마 선동원》,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 조직.

△《빛나는 승리, 위대한 전망》의 제목으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 내용을 그림극 및 환등극으로 만들어 발표.

ㄴ. 혁명 전통 학습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공청 시기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 모임》 조직.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공청원, 아동 단원들의 활동을 내용으로 《혁명 전통 연구 모임》 진행.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보낸 민청 중앙 위원회 호소문 내용을 해설 해 주는 사업.

△청년 영웅, 청년 로력 혁신자들과 상봉 모임 조직.

△민청 창립 18 주년 기념 분단, 반 별 빙상 경기 및 유희 오락 조직.

세째 : 소년단 조직 생활 강화

ㄱ. 방학 간 소년단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단, 분단 위원들이 부락 별로 또는 반 별로 맡아 지도하는 사업 진행.

ㄴ. 방학 간 사업을 총화하는 단, 분단 위원회 진행

ㄷ. 단, 분단 위원, 반장들의 강습, 경험 교환회 진행.

△ 인민군 창건 16 주년을 앞두고 위안 편지 조직.

△ 방학 간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 돕기.

△ 참새, 까마귀, 방울새 등 해조잡이.

△ 파지, 가위'밥 등 폐설물과 구리(동합금) 공병 등 유휴 자재 모으기.

꼬마 진료소

《이상한 일인데 왜 발'가락이 갑작스레 가려우며 아플가?》

운동장에서 들어 와 방금 난로 곁에 앉았던 철웅이는 발'가락과 발'등을 벅벅 긁으며 말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철웅이를 데리고 꼬마 진료소로 갔습니다. 꼬마 의사는 철웅의 발'가락을 이리 저리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흰 약을 발라 주고는 말하였습니다.

꼬마 의사—너 동상을 입었구나. 아침에 어떻게 하고 학교엘 왔니? 발에 맞잖은 신을 신고 오잖았니?

철웅—아니야, 오늘 아침에 뜰안의 눈을 쓸다가 젖은 양말을 그냥 신고 왔을 뿐이야.

꼬마 의사—그러니까 동상을 입지, 젖은 양말이 얼면서 발'가락까지 얼었구나.

철웅—동상은 왜 입게 되니?

꼬마 의사—동상은 주로 손, 귀, 코, 발 등에 잘 입게 된단다. 거기에는 큰 혈관들이 없고 가는 모세 혈관이 지나 갔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다른 데보다 잘 되지 않는단다.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하면 딴 데보다 쉽게 얼게 되는 것이다.

철웅—동상을 입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니?

꼬마 의사—동상은 몇 가지로 나눈단다. 그 정도에 따라 1 도, 2 도, 3 도 동상으로 각각 나누지. 1 도 동상이라면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추위에 줄어 들어서 피가 제대로 통하지 못 해 피부가 희여지고 감각이 없어져서 좀 아파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지금 네가 입은 동상이 1 도 동상에 속하지.

2 도 동상쯤 되면 피부가 부어 올라 시퍼렇게 보이고 물'집이 생기고 안에 붉으스레한 물이 생긴단다.

3 도 동상은 아주 심한거지. 이 때는 피부 세포가 완전히 얼어서 살이 딴딴해지구 심할 때는 귀바퀴를 다치면 대깍하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단다.

철웅—동상을 입었을 땐 어떻게 하면 좋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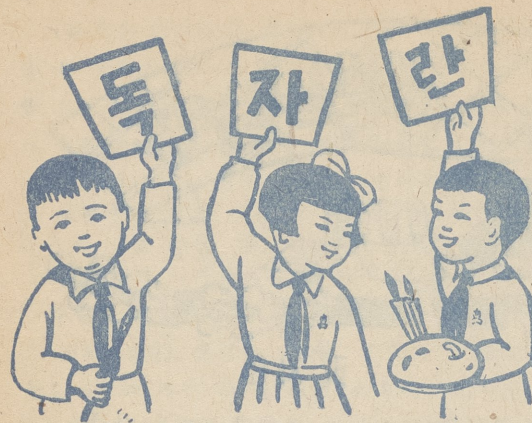
꼬마 의사—동상 입은 곳을 갑자기 덥게 하여서는 안 된다. 먼저 동상 입은 곳을 가볍게 비벼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한 다음 차츰 덥게해야 한다.

1 도 동상 정도 입었을 때는 집에서도 손쉽게 치료할 수 있단다. 짧게 쎈 가지 줄거리 약 80g 정도에다 물 한 사발 정도를 두고 다려서 그 물을 여러 번 마시면 좋단다. 만약 가지 줄거리가 없으면 조개껍질을 불에 태워 보드랍게 빻아 가루를 낸 다음 채에 쳐서 참기름에 개여 발라도 좋단다.

철웅—동상을 예방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니?

꼬마의사—동상을 잘 입게 되는 손, 발, 코, 귀 등에 때가 없도록 깨끗이 씻어야 하며 물'기가 없게 하고 다녀야 한다. 추운 날에 밖에 나갈 때는 꼭 장갑을 끼고 털모자를 내려 써야 한다. 그리고 좀 젖은 장갑을 낀다거나 젖은 양말을 신어서는 안 된다. 날씨가 춥다고 몸을 쪼구리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곧 동상을 입게 된다. 때문에 항상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손이나 귀가 시리면 가볍게 비벼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어야 한다. 특히 발에 맞지 않는 신을 신지 말아야 한다. 작은 신을 신으면 혈관을 압축하기 때문에 피가 잘 통하지 못 해 쉽게 동상을 입게 된다.

철웅—잘 알았어.

(동시)

한해를 보내는 마음

아빠트 마을 길'가에
소복소복 흰 눈이 내리는데
나는 생각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는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1963년, 이 해를 보내는 마음
더욱 벅차 오릅니다.
자랑과 기쁨으로 가슴 설레입니다.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닌
우리 분단을 축하하는지,
아니면 학기마다 최우등의 영예 지닌
나의 자랑을 알고 있는지…

흰 눈은 소리 없이 내리지만
저렇게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내리다가는 내가 서 있는
아빠트 창'가에 찾아 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며 나는 생각합니다.
아빠트 마을 길'가에 변함 없이
해마다 흰 눈이 찾아 와 내리듯
《모범 분단》의 영예—최우등의 자랑 빛내일 것을…

평양시 문신 중학교 3 학년
김 강 진

와릉와릉 잘도 도는
풍년 탈곡기야
황금벼를 털어라
쉴새 없이 털어라.

원수님이 다녀 가신
협동 농장 우리 마을
어화둥둥 벼'낟가리
셀 수 없이 솟았다.

오지주놈 호령 밑에
살아 가던 옛날엔
밤 새도록 벼 털어도
벼 산'더미 쌓아도

피삼죽도 못 먹던

우리네 부모들
오늘은야 땅의 주인
붉은 농군이란다.

에라 좋다 탈곡기야
신아 나서 돌아라
우리 지은 협동 농사
해마다 풍년 든다.

우리 살림 우리 행복
꽃처럼 피는 나라
탈곡기야 황금벼를
산'더미로 털어 내자!

황남도 벽성 고등 농업 학교 기술반
2 학년 김 창 국

리 시영

《소년단》 잡지에는 호마다 재미 나는 글들이 많이 실리지만 그 중에도 《독자란》의 작품들은 각별히 더 흥미를 끈다.

이 해 1 호부터 9 호까지의 《독자란》 작품들은 빠짐 없이 읽었다. 작품마다에는 한결같이 로동당 시대에 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행복한 모습이 노래되고 있다.

누가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었는가,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나도록 보살펴 주고 있는가,— 소년단원들은 행복하면 할수록 이렇게 생각할 줄 안다. 그리고 그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오늘은 우리의 명절날,
아버지 원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만면에 미소를 띄우시고
우리의 대렬을 보고 계십니다.
새로 내여 준 교복은 맞는가,
지난 해엔 몸과 마음 얼마나 자랐는가,
모두들 야영소에 다녀 왔는가,
원수님은 일일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황해남도 은률군 대조 중학교 김 효수는 동시 《세상에 부럼 없어라》 에서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시는 수령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힘껏 배우며, 나라 위해 싸우는 일'군이 되리라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말 원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오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신 항일 유격대 아저씨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되였다. 그러기에 자강도 강계 경공업 학교 김 정훈은 동요 《백두산의 흙》에서 혁명 사적지 답사에 가서 《가슴 속에 품고》 온 한 줌의 흙을 두고도 그 분들의 뜨거운 심정을 가슴 가득히 느낀다.

흙 한 줌씩 품고서
조국땅을 그리며
왜놈들과 싸워 이긴
빨찌산 아저씨들,

우리들도 한 번씩 품어 봅니다.
그 분들의 붉은 마음 뜨겁게 뜨겁게 안겨 옵니다.

이 시를 읽노라면 항일 유격대원들의 붉은 마음을 이어 받고 우리도 그렇게 나라 위해 싸우리라는 굳센 뜻을 가슴 깊이 다지게 된다.

이 두 시들은 작자들의 심정이 꾸밈 없이 나타나고 있어 좋다.

함북 영안군 당화 중학교 최 창환의 동요 《바다는 좋아요》에는 소년단원의 높은 꿈과 씩씩한 모습이 아주 잘 노래되고 있다. 늘쌍 쓰는 말로 짧게 엮었지만 아침 저녁 늘 바라 보는 바다이건만 무심히 지날 수 없는 소년단원의 감정이 힘있게 안겨 온다. 그는 다만 경치가 좋아서만 바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라에 섬길 고기떼가 설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라서 그 바다의 정복자가 될 꿈이 깃들어 있기에 무한히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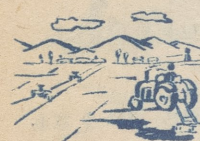
붉은 넥타이 날리며
학교 길을 걸을 때마다
뛰여 들고 픈 조국의 바다,
우리는 이 바다의 정복자 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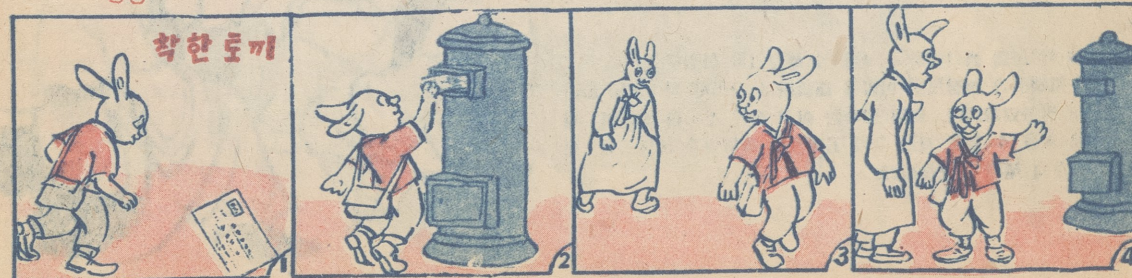
이 동요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바다를 그리면서 조국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소년단원—작자의 갸륵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좋지만 또한 물'결처럼 설레이는 마음이 씩씩하게 표현되여 부르기 좋아 더 좋다.

작품들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작품을 쓴 동무들이 그저 학교가 아름답다던가, 실습 로동은 흥겹다던가 하는 식으로 겉으로 본 그 대로 그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느낀 것을 나타내자고 애쓰고 있는 점이다. 그것은 그 작품들에 이것 저것 두루 다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감동 받은 것, 자기가 생각한 것을 될수록 뚜렷이 나타내고저 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상원군 상원 중학교 김 성국의 동시 《어서어서 실어 내자》, 상원군 상원 중학교 주 승일의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읽어 보아도 그러하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실지 천리마 기수들의 일하는 모습을 다만 구경만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 가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뜨락또르를 빨리 몰아 가는 것도 한 포기의 모라도 일찌기 내자고 서두르는 것도 다 나라에 바치는 천리마 기수들의 정성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 하고서는 천리마 시대의 소년들이라고 할 수 없다.

동시 《어서어서 실어 내자》에는 천리마 기수들의 일'손을 도와 나라 위해 조금이라도 땀을 흘리며 정성을 들이려는 소년단원의 기특한 심정이 담겨져 있어 마음에 든다.

논'배미가 손짓하며 우리를 불러요.
5백만 톤 벼 낟가리 우리를 불러요.

얼마나 그럴듯한 표현인가, 어떤 동무는 이런 표현은 실제 사실 대로가 아니라고 할른지 모르겠지만 (그런 동무는 없을 것이다.) 시에서는 이런 표현이 생각과 느낌을 더 잘 더 뚜렷이 나타낸다.

우리는 내용을 짧게 하면서도 뜻을 잘 나타내도록 애 쓰는 것이 필요하다.

황해북도 신계군 은점 중학교 리 재신의 동요 《나는 무엇이 될가》는 군더더기가 없는 잘 된 작품이다.

이 밖에도 동요, 동시들 가운데는 조국 통일을 노래한 것, 미래의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리라는 결심을 노래한 좋은 동요, 동시들이 많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욕심으로 더러 있는 결함을 말한다면 먼저 남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자기가 생각해 낸 것이 없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년단원의 심정은 소년단원 자신들이 아마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러니만치 자신이 생각한 것을 대담하게 표현하자. 그래야 그 작품을 읽는 다른 동무들도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을에는 새 집들이 늘어서고 논 밭엔 뜨락또르가 달리고 기계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치면 별로 그 작품에 마음이 끌리게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너나 나나 또 다른 동무들도 늘 보았고 보고 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를 재미 있게 표현하도록 힘 써야 한다. 그리고 아직 본 것을 그림그리듯이 말로 잘 그려내는 힘이 부족한 것 같다. 하나 하나의 작품마다가 한 폭 한 폭의 그림처럼 선히 눈에 보이게 그려져야 더 재미 있게 읽을 수 있고 더 잘 뜻을 알 수 있다. 그저 《즐겁게 학교에 가요》 하는 것보다 《학교 갈 땐 벙긋벙긋 아침 해'님 웃고요》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소년단원들은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쓰고저 하는 것에 대한 목표들을 명확히 잡고 쓰며 한 편의 글, 한 장의 글을 써도 자기의 정열과 정성을 다 담아 써야 한다.

(만화)

홍 길 동

(제 12회)

신구현　　　　그림　맹동원

(156) 산 좋고 물 맑은 조선
홍 길동 의병 대장님
농사'일도요 횡하여
농사'일도 횡하여
얼시구 얼시구 좋을시구
해마다 만 풍년이로세

황금나락 물' 결치는 들판을 흥겹게도 노래'소리가 울려퍼집니다.
높은 나락에서 길동은 깊은 생각에 잠기여 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157) (저 들판이 조국의 들판이라면, 저 노래가 조국의 인민이 부르는 노래라면 얼마나 좋을가!)

길동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금 나락 설레는 들판을 조국의 쓸쓸한 벌판이 가리우고, 흥겨운 노래' 소리를 조국 인민들의 신음 소리가 막는 것입니다.

(부강한 조국을 위하여 어머니-조국을 떠났던 것이며 고생살이에서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 《활빈당》을 조직한 것이 아니였던가)

길동은 손수 마 치를 들어 힘껏 종을 뗑-뗑-뗑 쳤습니다. 여덟 장수 모이라는 종입니다.

(158) 종소리를 듣고 여덟 장수가 일제히 모여 왔습니다.

《앉으시오!》

길동의 말소리는 첨부터 엄숙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률도국을 보니, 조국을 잠시도 잊을 수 없소. 어머니-조국의 품이 그립소. 어떻소?》

(159) 《장군의 생각이자 곧 우리들 생각임을 아뢰오.》

치백이가 선참으로 이렇게 대답하자 나머지 장수들도 따라서 말하였습니다. 여덟 장수는 살기 좋은 조국을 위하여 계속 싸울 수 있게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길동에게 제기 하였습니다.

(160) 길동은 여덟 장수들을 조국으로 돌려 보내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도술을 날날이 대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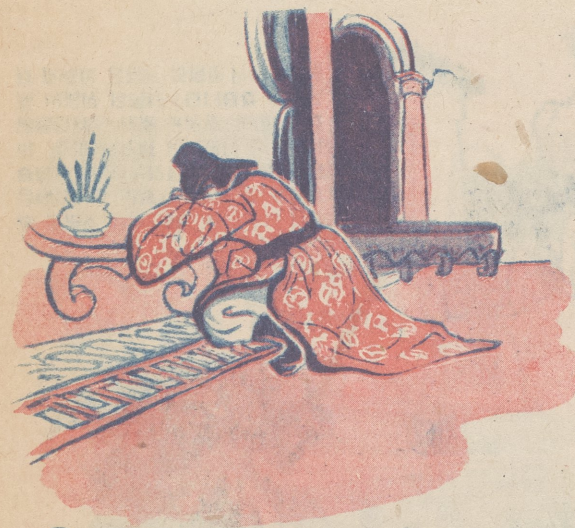
여덟 장수들은 누구나 다 재주를 부리며 멍석을 불러 타고 떠다닐 수 있고, 갑자기 바람이 일고 비가 쏟아 지게 할 수 있고 몸을 감출 수 있게 되였습니다.

(161) 률도국은 3년째 계속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10월에 풍년제가 열리였습니다. 률도국 방방 곡곡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습니다. 련사흘 노래와 춤이 벌어지고 말 타기 활쏘기 씨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률도국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때 여덟 장수는 각각 멍석을 불러타고 하늘 높이 떠서 조국으로 떠났습니다. 《활빈당》의 위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길동은 일부러 이런 날을 택했던 것입니다.

(162) 률도국에서 길동의 신망은 하늘과 같이 높아만 갔습니다. 길동의 신망이 높아 감에 따라, 조선과 조선 사람들에 대한 률도국 사람들의 생각도 아주 변하였고 진정으로 존경하게까지 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활빈당》용사들은 여덟 장수의 뒤를 따라 계속 조국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163) 여덟 장수의 활동은 눈부시였습니다 여덟 장수들로부터 길동에게 소식이 계속 전해 왔습니다. 도화동 할아버지에게서도 소식이 자주 왔습니다. 지척이 천리가 아니라, 천리가 지척으로 되였습니다.

⑯④ 조국 백성들은 장군이 률도왕이 되였다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하루속히 조국으로 개선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편지를 여덟 장수들에게서 받고 길동은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고 그리워 하는 정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⑯⑤ 어머니의 편지는 길동을 더욱 괴롭게하였습니다. 광업이 편에 보낸 편지를 보고 쓴 회답이였습니다. 홍 판서는 죽고 본부인 류씨 역시 로환으로 괴로와하며 인형은 참판 벼슬을 지낸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편지는 집을 떠날 때 약속한 대로 하루 속히 상봉하여 자식을 그리는 정을 덜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⑯⑥ 무슨 면목으로 어머니를 뵈일 수 있단 말인가? 나라와 인민들의 형편이 십여년 전에 집을 떠날 때나 이제나 무엇이 달라졌단말인가, 떳떳한 낯으로 어머니를 뵈옵고 인민들을 대하자면 계속 싸워야 되잖겠는가.

《어머니,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 막심한 자식을 용서하세요.》

길동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높이 웨치면서 엎어져서 흐느끼였습니다.

⑯⑦ 보희가 안에서 이 웨침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무슨 일로 이다지 슬퍼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길동은 진정을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여나서 어머니 한분 섬기지 못하니 어찌 사람 축에 든다 하겠소. 인간을 찌그러지게하는 세상 참으로 저주롭소. 보시오. 어머님께서 주신 편지요.》

⑯⑧ 편지를 읽고나서 보희는 어머니를 모셔 오자고 하였습니다. 길동은 손을 내 저으면서

《오시지 않을거요. 자기 한분의 행복때문에 조국을 잠시도 뜨려고 생각하지 않을거요. 우리 어머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요.》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습니다.

⑯⑨ 길동은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길동은 보희와 함께 높은 다락에 마주 앉아 보희가 뜯는 가야금에 맞추어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오색 구름이 다락에 드리우더니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인자한 얼굴에 웃음을 띠우시고 길동과 보희 손목을 잡으시며

《너희들 재미 어떠냐? 이제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끌)

❖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련재 그림 《홍 길동》은 이번 12회로 끝이 난 셈입니다.

글에 부족점이 많았는데 여러 독자들이 흥미 있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림의 덕분이며 여러 독자들의 열성에 있습니다.

련재 그림 《홍 길동》의 주인공은 우리 나라의 유명한 고전 소설 《홍 길동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대로는 아닙니다. 배경도 사건도 인물들도 《홍 길동전》에 기초하면서도 바로 그대로는 되여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 위주가 되여 있는 《홍길동 전》을 성격의 위주가 되도록 하자니까 자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홍 길동의 성격을 통하여 주요하게는 《홍 길동전》의 애국주의 사상을 강조하려고 하였습니다. 생활 처지는 주인공으로 하여 열렬한 애국자로 되게 하였습니다. 그 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련재 그림 《홍 길동》은 성격에서 또한 《홍 길동전》의 락관주의를 강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락관주의는 옳지 못한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항거정신과 행복한 미래에 대한 념원에서 보여 주려고 하였습니다.

애국주의와 락관주의—이것은 《홍 길동전》의 중심 사상이며 조선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련재 그림 《홍 길동》은 《홍 길동 전》의 환상을 그것이 더욱 진실한 것으로 느끼도록 살리였고 발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홍 길동 전》의 여러 가지 《도술》은 억압과 착취를 벗어나려는 절실한 생각에서 흘러 나온 것입니다.

필자의 이러한 의도를 참작하여 련재 그림 《홍 길동》을 보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로부터)

동물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낼가요?

전 응 덕

추운 겨울이 되였습니다. 푸르고 싱싱하던 나무 가지들에는 하얀 눈꽃이 피였고 수정 같은 얼음이 강물을 곱게 덮어 버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우리 주위에 있던 그 많은 곤충들과 동물들은 지금 어디로 다 사라졌을가요? 그들은 이 추운 겨울에 모두 얼어 죽은것일가요? 아니면 어디서 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일가요. 그럼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어 보기로 할가요.

나비의 《아들》과 《딸》들

꽃을찾아 즐기던 나비들은 모두 얼어 죽었으나 그들의 《아들》《딸》들인 번데기는 땅속이나 아늑한 마른 풀속에 박혀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나비의 《아들》《딸》들인 번데기는 령하 7~9 도까지 내려가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따스한 봄이오면 나비가 되여 나오지요. 그중 흰 나비는 4월 말경에 나비로 되여 날아 나옵니다.

잠만 자는 고슴도치와 박쥐

박쥐와 고슴도치는 겨울이 오면 깊은 굴속에 들어가 잠만 잔답니다. 고슴도치는 가을이되면 마른 나무'잎들이 쌓인 곳에가서 딩굴러 가시들에 락엽을 그뜩 붙여가지고 나무'잎이 쌓인 웅덩이나 썩은 나무 구멍에 들어가 겨울을 나기도하고 때때로 오소리나 너구리 굴속에 들어가 한해 겨울동안 아무것도 먹지않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잔답니다. 이때 오소리나 너구리는 고슴도치를 절대로 해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의 겨울 《옷》과 여름 《옷》

털은 짐승들의 《옷》으로 됩니다. 모든 짐승들은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습니다. 여름철에 짐승들의 털은 매우 성기어졌다가 차츰 날이 차지게되면 점점 빽빽해집니다. 모든 짐승들은 보통 봄과 가을에 《옷》을 갈아 입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 소등도 봄과 가을에 《옷》을 갈아 입는 것을 우리들은 흔히 보지 않습니까. 동무들이 올 겨울에는 정말 그런가고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살 곳을 찾는 고기들

겨울이 되면 바다'물은 차집니다.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고등어, 멸치, 방어, 삼치, 갈치 등은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벌써 9월 하순부터 따뜻한 남쪽 바다로 찾아 갑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 나라의 바다보다 더 추운 곳인 오호쯔꾸해 지방에서 살던 명태나 대구, 청어 같은 물'고기들은 10월 경부터 우리 나라 바다로도 찾아 온답니다. 그럼 강물이나 호수에 사는 고기들은 겨울을 어떻게 날가요?

강물이나 호수가 얼면 고기들은 얼어 죽지 않을가요?

얼음은 물'속 깊이로 찬 바람이 들어 가지 못하게 막아 주는 고기의 《외투》와 같답니다. 그러나 역시 겨울이 되면 물밑은 추울뿐만 아니라 얼음이 물 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잘 공급되지 못해 고기들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물에서 사는 잉어, 붕어 기타 고기들은 여름과 가을에 많은 먹이를 배불리 먹고 물밑의 아늑한 곳에 모여 숨도 적게 쉬며 그리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겨울을 지냅니다. 뱀장어나 붕어는 감탕속 깊이에까지 들어가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또 모래치는 몸을 모래에 파묻고 겨울을 납니다.

새들의 겨울 나기

따스한 털을 가진 새들이라도 어떤 새들은 겨울 추위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비와 쩌꼴새같은 새들은 벌써 10월 초순이되면 더운 지방인 중국의 남부, 말라이반도, 동부 인도 지방으로 먼길을 떠나가 이듬해 봄이 되면 또다시 찾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들 가운데는 추운 겨울을 좋아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기러기, 콩새, 티티새와 같은 새들은 겨울에 우리 나라에 와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면 다시 씨비리, 캄차카 반도등 북쪽으로 간답니다. 참새, 까치, 꿩, 박새, 까마귀등은 그들의 조상때부터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여 내는데 습관되여 사철 우리 나라에서 산답니다.

새들가운데는 흥미있게 먹을 것을 저장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개구마리라는 새는 때때로 개구리, 메뚜기, 들쥐 등을 잡아 나무가지에 매달아 두기도 합니다. 부엉이도 먹을 것을 나무나 돌같은 구멍에 넣어 둡니다. 남쪽 지방에 사는 어떤 딱딱구리는 가을이되면 나무들에 도토리 알만한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도토리같은 열매를 박아 넣었다가 겨울에 눈이 쌓인 후에도 이것을 다시 찾아 내여 먹는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무에는 이런 구멍이 1,000개씩이나 된답니다.

곰과 너구리네 《가족》들

곰, 오소리, 너구리들은 눈 내리기 전에 많이 먹고 몸에 영양분을 그득 채워가지고 굴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뱀이나 개구리처럼 온 겨울을 잠 안 자는 것은 아닙니다.

곰은 땅굴속이나 속이 빈 나무통에 들어가 겨울을 지내다가 춥지 않는 날에는 굴속에서 나와 해바라기를 하거나 배가고프면 눈을 헤치고 도토리를 주어 먹기도 한답니다.

너구리는 한 굴에 5~7마리씩 무리를 지어 마치 한 《가족》처럼 겨울을 지낸답니다.

목구멍을 막고 잠자는 개구리

개구리와 뱀은 겨울을 나기위해 늦은 여름과 가을 사이에 배가 터질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이리하여 몸에 살이 찌고 기름이 생긴 다음 뱀은 땅속이나 혹은 썩은 나무 구멍 속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어떤때는 무리를 지어 낟가리 밑 같은 데 들어 가 겨울을 나는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도 양지 바르고 습한 땅속이나 물밑에 깔린 락엽 사이에 꼭 박혀 봄철까지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개구리는 입을 다물고 목구멍을 껍진 껍진한 침으로 막은 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아주 느리게 숨을 쉽니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1 분간 40~50회 정도 뛰던 맥박도 이때는 겨우 1~3회 밖에 뛰지 않게 됩니다.

개구리가 숨도 적게 쉬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자기 몸에 저장한 영양분을 될수록 조금씩 소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동면하던 뱀과 개구리는 이른 봄이 오면 잠에서 깨여나 땅속에서 나옵니다.

눈'속을 헤매는 짐승들

메'돼지, 범, 노루같은 짐승들은 겨울에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인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을 찾아 많이 먹은 날에는 며칠 동안 굴속에 들어가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루는 좀 따뜻한 날에도 해가 잘 들지 않고 눈이 쌓인 눈판 우에 누워 쉰답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가요. 동무들은 여름철에 소잔등을 파먹는 등에 (소파리)를 알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등에는 여름철에 노루의 잔등에 알을 쓴답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여난 구더기는 노루의 가죽을 뚫고 몸에 들어가 겨울동안 번데기로 자라나게 됩니다. 노루는 이 번데기가 자라나는 시기에 몹시 간지러워합니다. 때문에 노루는 추움을 무릅쓰고 눈판우에 누워 이 간지러움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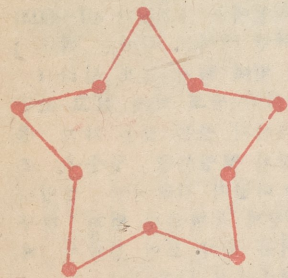
12호 현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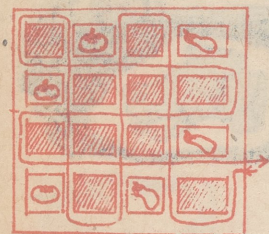
★ 영숙이네 학교 단에서는 더 많은 가축을 기르려고 토끼, 양, 오리를 새로 좋은 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학교 가축 수의 절반, 오리는 학교 가축 수의 $\frac{1}{3}$, 양은 오리보다 25 마리 적습니다. 각각 몇 마리씩이겠습니까?

(중등반)

★ 함북 경원군 룡북 중학교 김 정산 동무는 다음과 같은 현상 문제를 편집부에 투고했습니다.

성냥 가치 여섯개로 삼각형을 네개 만들라는 것이예요. 어떻게 할가요?

(인민반)

10호 현상 문제 해답

(인민반)

(중등반)

10호 현상 문제 당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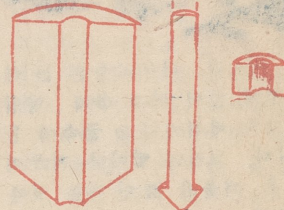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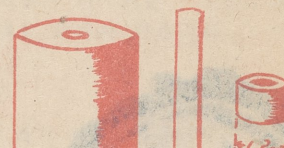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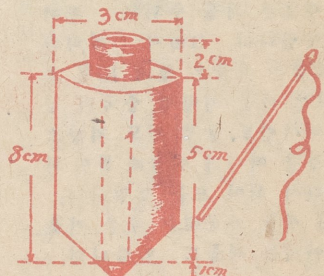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 중학교 김 복희
남포시 우산 중학교 김 응순
강원도 판교군 명덕 농업 학교 신 택진
평북도 정주군 서주 중학교 지 혜숙
평양시 락랑구역 송남 중학교 김 병근
개성시 고려 중학교 차 경화
평남도 숙천군 운평 중학교 리 금연
황북도 신계군 대정 중학교 김 호연
평북도 정주군 일신 중학교 박 금숙
함북도 경성군 승암 중학교 리 량자
평북도 동창군 대동 중학교 정 성숙
함북 김책시 송중 중학교 최 성우

팽이 만들기

제일 먼저 그림 1과 같은 본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림 1과 같은 본체를 만들자면 통 나무로 직경 3 cm, 길이 5 cm쯤 되게 자르고 그 중심부에 그림과 같이 송곳이나 쇠꼬치를 달구어 축을 넣기 위한 구멍을 뚫는다.

다음은 본체를 깎는다. 축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길이 8cm, 직경 6mm로 만든다. 다음은 그림 3과 같이 축 손잡이를 만들고 축을 끼우기 위한 구멍을 뚫는다. 이번에는 축을 본체에 맞추고 축 손잡이를 축에 꽂으면 된다.

다음은 그림과 같은 팽이채를 만든다.

팽이를 돌리는 방법은 축 손잡이에 팽이채 끈을 감았다가 얼음판이나 운동장에 잡아당겨 놓으면 돌아간다. 그러나 도는 힘이 약해지면 채로 계속 치면 된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3년 第12호 (총 170 호) 편집 위원회
1963년 11월 25일 인쇄 1963년 12월 1일 발행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713 값 25전

과학환상 만화

땅속 보물을 찾아서 (제2회

글 안형룡 그림 안창수

⑤ 《꼭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창남이는 일동을 대표하여 답례를 하였다.

⑥ 《브르릉》
. 차는 발동을 걸자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손을들어 그들을 축하하였다.

⑦ 수레는 빠른 속도로 땅속으로 들어갔다.
창남이는 곧 지상에 모든것이 정상이라고 보고를 했다.
테레비죤 영사막에는 환송 군중들의 얼굴이 보였다.

⑧ 《지각도를 보자》
명숙이는 가방에서 지각도를 꺼내며 창남이와 관식이를 불렀다.
《우리가 들어 온 곳은 흙이란 전혀없고 모두 암석뿐일가?》
명숙의 곁에 앉아 지도를 보던 관식이가 물었다.
《그걸 알려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가 부터 알아야 돼》
창남의 말에 명숙이와 관식이는 지구의 《탄생》에 대하여 몹씨 알고 싶었다.

⑨ 《너희들은 지구도 태양계의 아홉개 행성중 하나이란 걸 알지 그리고 그 별들이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도…》
창남이는 지구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태양계가 이 우주 공간에 무수한데 그 별들은 모두 은하수를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돈단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니?》
관식이는 창남의 이야기를 놓지지 않고 적어 가다가 물었다.
《초속 30 km로 돌지때태양계는 은하계를 한번 도는데 2억 5천 만년이나 걸린단다》
《야! 굉장히도 빠른데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관식이와 명숙이는 감탄하듯 말했다.
창남이는 제법 그림까지 그려가며 계속 지구의 《탄생》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 별만 있은게 아니라 성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별들과 함께 빙빙 돌았단다. 그러다가 어떤 성운들은 인력(두 물체간 서로 끌어 당기는 힘)에 의하여 별에 떨어지기도하고 성운들 간의 인력으로 인하여 서로 뭉쳐 하나의 큰 행성으로 되기도 했단다.
《그러니 지구도 성운이 모여 되였겠구나》
명숙이가 물었다.
《응 그래 지구가 현재와 같은 크기로 되기 까지에는 약 70억 년이란 세월이 흘렀단다》
창남이는 명숙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다음 호에 계속)

8248
378 93